력사 위조자들

(력사적 사실)

★

외국문서적출판부
모스크바。一九四八년

력사 위조자들

(력사적 사실)

★

외국문서적출판부
모쓰크바★一九四八년

Printed i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일월말에 미국국무성은 영국파 불란서 외무성과 더부러「一九三九년—一九四一년간의 나치쓰트국가와 쏘베트 국가와의 관계」란 이상야릇한 명제하에서 히틀러 외교관들의 보고서(報告書)와 일긔(日記) 각편의 문헌집을 광포하엿다。

본문헌집 서언에서 명시된바와갓치、미국、영국 밋 불란서 정부들 호상간에는 미국군정파 영국군정이 독일에서 접취한 서류、즉 一九一八년 내지 一九四五년의 독일외무성의 문서고(文書庫)서류를 광포하기로 一九四六년 여름에 벌서 의론이 잇섯다。 헌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치못할 상황이 잇다。 광포한 문헌집에는 단지一九三九년 내지 一九四一년의 재료만 편입되엿으며 그 전긔의 재료、례컨대 뮨헨시긔의 재료는 국무성이 그 문헌집에 편입하지안앗다。 이리하여 그재료는 세계의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은폐되엿다。 이것이 물론 우연한 발작이 아니다。 그 목적은 력사적 진리에 대한 객관적 밋 양심적 태도를 취하지 안으려는 거긔에 잇다。

히틀러적 관료배의 긔록문에서 수의적(隨意的)으로 채취하고 그 진가(眞假)를 검렬치안혼 재료를 수집한 이 문헌집을 단독적으로 광포한것을 모쪼록 세계여론 압헤서 변명코저하여 영미출판물은 맛치 「로시아인들이 서구라파가 제의한바、나치쓰트국가의 외교문헌전집을 공동적으로 광포하자는 의견을 동의치안앗다」는위조적 설명을 가첨하엿다。

영미국측의 이 성명은 **사실과 부합되지안는다**。

기실은 사태가 이러하엿다。독일에서 전시에 획득한 문헌을 광포할 준비를 영국에서 시작하엿다는 보도가 一九四五년 녀름에 외국 신문지상에 게재되엇을때에 쏘련정부는 이와 련쇄하여 영미군대가 접취한 독일 문헌을 공동적으로 심구(審究)함에 쏘련 전문가들을 참가식힐것을 강조하면서 영국정부에 제안하엿던것이다。이러한 문헌을 공동적 합의가 업시는 광포함을 용허할수 업다고 쏘련정부가 인정하엿스며 그와 동시에 정밀히 또는 객관적으로 검렬치안흔 문헌을 광포함에 대한 책임을 쏘련정부는 가질수 업섯던것이다。웨그러냐하면 이와갓흔 초보적 조건을 준수치 안코 우에 말한바의 재료를 광포한다면 반(反)히틀러적 련합국들의 호상간 관계만 악화할것인까닭이엇다。허지만 영국외무성은 쏘련의 제안을 거절하엿다。그 구실은 략취한 히틀러 문헌의 복본(複本)을 교환하자고 쏘련정부가 제기한 문제가 아직 일즉하다는것이엇다。

一九四五년 九월六일에 미국대표단이 재독(在獨)통제의회 정치감리국(監理局)에서 독일 문서고(文書庫)재료와 문헌 취급에 관한 지령서 초안을 제출한것도 아는바이다。이 초안은、전 독일을 통하여 유일한 절차로 문서고서류를 수집하고 장보하게할것과 또는 유・엔기구에 가입된 국가대표들이 그 문헌을 참조함에 동등권리를 가질것을 예정하엿던것이다。그리고 그 문헌들을 등본할것과 발간할 권한도 예정하엿던것이다。이 제안은 정치감리국의 四차회의를 걸처 토의되엇으나 그러나 이문제는 지시를 밧지 못하엿다는 구실로 영국인과 미국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되엇다가 그다음、미국정부가 새제안을 준비하는터이니 이미 제출한 초안을 취소하여달라고 미국대표가 청원한 후에 와서는 본문제가 정치감리국 회의순서에서 삭제되엇던것이다。

이런까닭에 맛치 쏘련정부가 독일문서고 재료를 광포하는 준비사업에 참가하기를 거절하엿다는 성명은 허•위•적•이다。

우에 지적한 문헌집이 광포됨과 동시에 미국과 그의 예속국들에서는 그야말로 마법술의 조화에 감응된것처럼、一九三九년도에 쏘련과 독일이 체결한 호상불침범조약에 대하여 맛치 그것이 서구 렬강을 대치한듯이 떠들석하는 박해와 거칠업는 훼방운동의 새 파도가 일어낫다。

이런까닭에、一九三九년 내지 一九四一년의 쏘독관계에 관한 문헌집을 미국에서 광포한 그의 진정한 목적은 의심할수 업다。그 목적은 력사적 사변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려는 그점에 잇는것이 아니라 사변의 진상을 의곡(歪曲)하며 쏘련에 대하여 협담과 훼방을 하며 이리함으로써 침략적 밋 반(反)민주적 력량을 대치한 진실한 민주적 밋 백절불굴의 투사의 역을 리행하는 쏘련의 국제적 위신을 떨구려는 그점에 잇다。

이러한 배신(背信)적 립장은 동맹제국가 호상관계의 성질에 대하여 영미국 지배층이 가진바의 특징적인 견해와 부합되나니 그견해는 동맹제국가 호상간의 정직하고 진정한 관계를 지흘대신에 또는 그들의 교호(交互)적 신뢰와 지지가 잇을 대신에 오히려 자긔의 동맹자를 약하게할 야심과 또는 그를 자긔 독자(獨自)의 리익에 리용하며 그의 희생의 대까로 자긔의 처지를 확고할 야심으로써 온갓 가능을 리용하며 심지어 훼방책까지 기탄업시 쓰는 그러한것이다。

그 미국 지배층이 쏘련을 반대하는 그런 훼방적 운동으로써、쏘련과의 관계를 개선(改善)하려는 립장에 서고잇는 자국내 진보적 분자들의 영향을 떨구려는 야심을 품은 그

것도 망각치말어야할것이다。 미국에서 그 진보적 분자들에게 주는 공격은 一九四八년 가을에 진행될 미국 신대통령 선거를 압헤두고 진보적 분자들의 영향을 약하게하려는 목적도 가진것이 의심할바가 아니다。

문헌집에는 독일 외교관성(官省)의 암암리에서 히틀러 외교관들이 섞여낸 문헌들이 충만하엿다。 이 한가지 사정만하더라도、 사변의 서술을 히틀러 정부의 견지로하엿으며 그사변을 히틀러배에게 유익하도록 관조(觀照)할 목적을 가지엇던 그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문헌들을 단독적으로 리용하거나 광포치 못하도록할 경계는 반드시 되엿을것이다。 기실 이싼에 쏘련정부는 그때에 전시에 획득한 독일문헌을 밀우 또는 정밀히 공동적으로 검열치안코는 독자적(獨自的)으로 광포치말것을 주장하엿던것이다。 지어 불란서 정부의「프란쓰·쓰레쓰」통신사도 할수업시 시인하기를 쏘련이 모르게 삼개정부가 광포한 그러한 문헌공포 절차는「정상적 외교술과는 좀 위반된다」라고 하엿다。

허지만 영국정부는 이에 동의치 안앗다。 미·영·불·세 정부는 독일 문헌을 단독적으로 광포하여 력사 위조를 주저업시 하면서、 히틀러 침략을 대치한 투쟁의 주요한 중하(重荷)를 감당한 쏘련을 함부로 훼방하려고 시도하엿다。

이리함으로써 이 세 정부는 이와갓튼 독단적 행위의 인과에 대한 전적 책임을 지는것이다。

사태가 이러키때문에 쏘련정부도 영·불·미·세정부가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은폐하엿으며 현재에 쏘련정부의 수중에 들어온 문헌、 즉 히틀러 독일을 일방으로하고 영·불·미·세정부를 타방으로한 그 호상관게에 대한 비밀문헌을 사차불피코 광포하게 됨을 올타고 입

정하는바이다。이 정부들은 이 문헌을 은폐하엿으며 광포하지 안호려고한다。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바는、사건이 터진후이니까 말이지、력사적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헌을 세상에 광포할수박게 업다는것이다。

쏘련정부는 쏘련군대가 히틀러 독일을 박멸할때에 취득한 중대한 문헌을 가지엿는바 그것을 광포하는것은 히틀러 침략과 제二차 세계전쟁이 어써케 준비되고 발전된 그 진상을 바루 밝혀노흠에 도음이 될것이다。

쏘련 대신의회 직속의 쏘련 정보국이 지금「력사 위조자들」이란 제재하에서 발표하는 력사적 사실에 대한 재료도 역시 이상에 지적한 취지를 가진것일싸름이다。

본문제에 관한 비밀문헌은 갓가운 시일래로 광포될것이다。

一

독일침략 준비가 어써케 시작되엇던가?

미국의 위조자들과 그들의 영·불·조수(助手)들은 제二차 세계대전을 조발(挑撥)한 독일침략의 준비가 맛치 一九三九년 가을부터 시작된듯한 인상을 주려고 시도한다。 허나 어써한 선정(煽情)이라도 솔깃하게 미드려하는 아주 미욱한 사람들을 제하고는 어느 누가 오늘날 그 낚시에 걸리겟는가? 히틀러가 주권을 장악하자마자 인차 독일이 전쟁준비를 시작한것을 누가 모르는가? 그리고 또 히틀러 정체는 영·불·미·삼국 지배층의 전적찬동하에서 독일의 독점배들이 수립한것을 누가 모르는가?

독일이 전쟁을 준비하며 자긔에게 최신식 무장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자긔의 중공업, 위선 루르에 금속공업과 군수공업을 복구하고 발전식혀야할것이엇다。 제一차 제국주의 전쟁에서 전패를 당한이후 웰사유 조약의 강압하에 들엇던 독일은 단긔간에 제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실천할수 업섯다。 독일 제국주의는 이점에 잇서 미국의 유력한 지지를 바닷다。

미국 여러 은행과 트레스트가 자긔정부의 완전한 승락하에서 웰사유 후긔에 와서 독일경제에 투자하엿고 또는 독일 군수공업의 잠세력 복구와 발전에 소비된 수십억 쌀라의 차관(借款)을 독일에 준것을 누가모르는가?

웰사유후긔가 독일의 중공업、부분적으로 독일의 군수공업의 잠세력을 복구하는 수다한 방책을 가지어 온것을 아는바이다。이일에 잇서서 독일에 대한 소위 토—쓰배상안(案)이 큰 역할을 하엿으니 그것을 리용하여 영미국은 독일공업을 영미국 독점하에 종속식히려하엿던것이다。토—쓰안은 독일 공업에 외국자본、주로 미국자본이 심히 들어오고 투자될 길을닥갓다。결과에 一九二五년부터 벌서 독일경제의 향상이 시작되엿으니 이는 생산긔관의 재편제 작용을 긴장화하엿다。그와 아울러 독일수출이 현격히 장성되어 一九二七년도에 와서는 一九一三년 수준을 달성하엿으며 그 완성품에 잇서는 지어 그 수준을 十二%(一九一三년 가격으로)나 초과하엿다。一九二四년부터 一九二九년까지의 六개년 동안에 독일에 외국자본이 들어온것을 본다면 장긔투자는 一〇〇억 내지一五〇여억 말크이엇고 단긔투자는 六〇여억말크이엇다。어쎤 재료에 의하면 투자총액이 그 이상에 달하엿다。이는 독일의 경제적、부분적으로는 군사적 잠세력을 광대히 강장(強壯)식혓다。이일에 잇서서 미국의 투자가 령도적 의의를 가지엇섯으니 그는 전 장긔간 차관액의 무려 七〇퍼센트를 차지하엿던것이다。

독일 중공업의 자금(資金)공급에 잇서와 미국공업과 독일공업 호상간의 밀접한 련락관계를 조성하고 확장함에 잇서 쥬쎈、몰간、록펠레르、라몬또브 및 긔타 미국 대자본가 일족(一族)을 선두로한 미국 독점체가 어쎠한 역할을 한것은 잘 아는바이다。미국의 령도적 독점체들은 독일의 중공업、군용 콘체른 및 은행과 밀접한 혈연관계를 가지엇던것이다。자동차 트레스트「제네랄·모터쓰」의 긁은 주주(株主)들 일원인 마국의 령도적 화학 콘체른「쥬쎈·제·네무르」라던가、 대영제국 화학트레스트(「임페리알·케미클·

인다쓰트리쓰」)가 독일 화학콘체른「이·그·파르벤인두쓰트리」와 더부러 一九二六년에 세계 화약판매 시장을 분활합에 관한 카르텔리적 조약을 체결한후로 그와 밀접한 공업상 관계를 가지엇던것이다。 필라델피야(미국)에 잇는「롬 파 하아쓰」상회본사(商會本社)사장은 전쟁전에 다름스따트(독일)에 잇는 이 상회 두목의 동업자엇다。 그런데、이 콘체른의 이전 총장 루돌프·물레르는 지금「쌍구」(雙區)에서 활동하며 기독민주동맹(긔민·동)지도충에서 큰 역할을 리행한다。 一九三一년 내지 一九三九년간에「이·그·파르벤인두쓰트리」콘체른 사장이엇고「도이체·방크」의회 위원이던 독일 자본가 스미츠가 미국상회「제네랄·데이쓰탑·쏠샤레이센」을 통제하엿다。 문헨회의(一九三八년)후에 미국 트레스트「쓰탄다—트·오일」은「이·그·파르벤인두쓰트리」와 더부러 계약을 체결하엿는데 그에 의하여 후자는 미국에서 생산하던 비행긔용 휘발유의 리윤분배에 참가하게되엿고 그대신에 독일에서부터 합성휘발유를 수출치 안키로 선듯이 승락하엿는바 그쌔에 독일에서는 이 합성휘발유를 군용목적으로 축적하던차이엇다。

이러한 련락은 미국 자본주의적 독점체들에 대한 특징만도 아니엇다。 무역상 의의만 가진것이 아니라 군사상 의의싸지 가진 밀접한 경제적 관계는 례컨대 바로 전쟁전에 영국산업 련맹과 독일제국산업단 사이에도 잇섯다。 이 두 독점체련합의 대표들은 一九三九년에 쥬셀돌프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엿는데 그에는 말하엿으되 계약의 목적은「그 관계국가들의 공업체계를 가급적으로 충분히 합작함을 보장하려는 의도이다」라고 하엿다。 헌데 그쌔로 말하면 히틀러 독일이 체호슬로바세야를 삼켜먹은 쌔인데 이러한 일이 잇섯다!
이문제에 잇서서 론돈잡지「에코노미스트」에는 쓰기를「쥬셀돌프의 분위긔에는 영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판단력을 일케하는 그 무엇이 업는가?」(1)라고한것이 이상스럽지안타。

미국 밋 독일자본파 또는 영국자본의 밀접한 련관의 특징적인 실례는 명성잇는 스레데르은행이 될수잇으니 거기에서 령도적 역할을 쓰찐네쓰와 씨센파 및 긔타 루르의 공업대자본가들이 조직한 독일 강철트레스트「페레이닉쩨・스탈웰께」가 리행하엿는데 그 은행의 중앙총국은 뉴욕과 론돈에잇섯다。 이 은행의 업무에 잇서서 령도적 역할은 뉴욕에 잇는 론돈、쏄론 및 합부르그 스레제르일족안「이・그・스레제르・벤캉 쏠새레이센」 상회의 총장 알렌 달레쓰가 리행하엿다。 이 은행의 뉴욕 중앙총국에서는 현시에 마―샬씨의 총 참사관(參事官)인 쫀・포쓰쎄르・달레쓰가 지도하는 유명한 변호사적 상회「쌀리완・앤드・크롬웰」이 령도적 역할을 리행하는바 그 상회는 독일공업에 크게 투자하던「쓰싼달트・오일」이란 록펠레르의 세계적 원유트레스트와 또는 미국에서 가장 유세한 은행인「체이쓰・네이슈날・뺑크」와 밀접히 련락되엿다。

一九四七년에 뉴욕에서 간행된 르・쎄쏠리의 책에는 지적되기를 독일에서 웰사유후긔에 통화팽창이 정지되고 말크의 상장(相場)이 확고되자마자 외국차관이 독일로 실로 급류처럼 쏘다젓다한다。 一九二四년 내지 一九三〇년간에 독일의 외국빗은 三百여억말크에 싸지 증장되엿다。

외국자본、주로 미국자본의 협조로 독일공업、특히「페레이닉쩨・스탈웰께」(독일상회)

---

(1)Corwin D Edwards 경제와 정치에 잇서서의 국제적 카르텔리、一九四七년。

가 광대히 개건되고 현대화되엇다。 일부 차관은 직접 상회들에 투자되어 그 개건에 잇서서 주요한 역할을 하엿다。(1)

독일 강철트레스트 「페레이니쩨·스탈웰쩨」의 자금지불에 잇서서 영·미·독·스레데르은행과 함께 이때에 역시 뉴욕의 큰 은행들중 하나인 딜론·리드·앤드·컴파니가 령도적 역할을 하엿는데 그 은행의 총장들중 한사람으로써는 지금의 국방대신 포레쓰톨이 다년간 일하엿다。(2)

미국 딸라의 이 황금의 비(雨)는 히틀러 독일의 중공업、개중에는 군수공업을 융성케 하엿다。해외 독점체들이 히틀러 독일의 군사적 경제에 투자한 수십억 미국 딸라 이것은 독일의 군사적 잠세력을 재생하엿으며 그의 침략을 실현함에 필요한 무기를 히틀러 정체의 수중에 쥐어주엇다。

독일은 주로 미국 독점체들의 재정상 지지에 의거해가지고 무수한 일등 무기와 수천의 전차(戰車)、비행기、대포、최신식 군함 및 기타의 무장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력한 군수공업을 단기간에 부흥식히엇다。

히틀러 침략을 무장하여주엇고 제二차 세계대전을 조발식히엇으며 인류로 하여금 수

---

(1) Richard Sasuly, «I.G.Farben», Boni and Gaer, New York, 1947, P.80.

(2) Stock Exchange Year Book, London, 1925; Who's Who in America; .Who's Who in Finance, Banking and Insurance; Moody's Manual of Railroads and Corporation Securities; Poor,s Manual, 1924—1939.

백만의 희생을 당하게한、참말로 력사에서 미증유한 전환을 가져온 그러한 정책을 쓴 책임을 회피하려는 력사 위조자들은 이모든것을 망각하려고햇던것이다。

이와가티、히틀러 침략의 첫재 또는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일의 중공업과 군수공업의 부흥과 혁신이엇는데 이것은 미국 지배층의 직접 또는 광범한 재정상 지지때문에 가능햇다는것을 니저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이것뿐이 아니다。

히틀러적 침략의 횡행을 협조한 다른 결정적 상황은 영・불・양국 지배층의 정책、즉 히틀러 독일을 「조정(調停)」시키려는 정책、협동적 안전보장에 대한 거절정책 그것이엇다。기실 영・불・양국 지배층의 이 정책、즉 협동적 안전보장의 정책、독일침략에 대한 대항(對抗)정책、히틀러 독일의 침략적 요구의 묵허정책——이것이 제二차세계대전에로 끌어너헛다는것을 우금에는 일반이 다 긍정하게될것이다。

사실로 넘어가자。

히틀러가 주권을 장악한후 오래지안어 영・불・양국 정부의 성력으로 말미암아 一九三三년도에 영・독・불・이・四국의 「합의협동조약」이 롬에서 조인되엇다。이조약은 별서 그때에도 자긔의 침략적 의도를 숨기지안은 독일 및 이태리 파시즘과 더부러 영・불・양국이 협정햇던것을 의미한다。제팟쇼국과의 이 조약은 동시에 제침략국을 대치한 자유애호 열강국의 통일전선 공고정책을 거절하는것을 의미하엿다。영국과 불란서는 다른 국가들——불침범조약과 침략측 판정조약을 체결하자는 쏘련 제안을 그때에 토의하던 군비페

지회의 참가국——이 모르게 독일과 이태리와 더부러 협정함으로써 평화보장과 각국 인민의 안정보장의 위업에 타격을 주엇던것이다。

그후에 인차 一九三四년에 영국과 불란서는 자긔들과의 동맹국인 귀족국 파란이 쏘련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진 그것을 히틀러가 리용하도록 도와준 결과에 독·파·불침법조약이 체결되엇다。이것은 독일의 침략준비에 잇서서 중대한 한 단계이엇섯다。이조약이 히틀러에게 요구된것은 협동적 안전보장동맹국들의 대열을 교란(攪亂)케할목적과 이 실례로서 구라파에는 협동적 안전보장보담 양면적 협약이 요구된다는것을 보일 목적이엇섯다。이것은 독일 침략으로 하여금 누구와 어느때에 협약을 체결하며 또 어느때에 누구를 침공할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을 주엇다。독·파·조약이 협동적 안전보장이란 큰 집에 뚤려진 첫 구멍이엇음은 의심할바가 아니엇다。

대담하여진 히틀러는 독일의 무력을 로골적으로 복구할 여러 방책을 쓰엇는데 이것은 영국과 불란서의 지배자들 측으로부터 하등의 반향도 이르키지 안앗다。이와반대로, 미구에 론돈에로 특파된 리벤쯔로쁘를 대표로하고 一九三五년에 영·독·해상협약이 체결되엇으며 그에 의하여 거이 불란서 해군력만한 범위로 독일의 해군력을 회복식힐데 대하여 영국이 승락하엿다。이박게 또 히틀러는 영국 잠수함 총배수량의 四十五퍼센트만한 잠수함을 건조할 권리까지 어덧다。웰사유조약에 의한 독일군비 장성제한에 관한 긔타의 온갓 조건을 히틀러 독일이 독단적으로 이때에 취소하엿지만 영국、불란서 및 미국 측으로부터는 하등의 반향도 업엇던것이다。

팟쇼적 침략배의 구미(口味)는 미·영·불·측의 확연한 묵과로서 날로 더 늘어갓다。

이런싸닭에 독일과 이태리가 아비씨니야와 서반아에서 그군사적 무장간섭을 손쉽게 하게 된것이 우연한 일이아니엇다。

오로지 쏘련만이 자긔의 평화정책을 철저하게 또는 확고하게 쓰면서、황차 국제련맹의 일원이던 아비씨니야의 평등권과 독립권의 원측을 고수하엿으며 서반아에서의 독・이・무장간섭을 반대한 민주국가들측의 지지를 서반아의 법적 공화정부가 바들 권리를 고수하엿다。

이태리가 아비씨니야를 침공한데 대하여 브・므・몰로또브동무는 一九三六년 一월十일에 쏘련 중앙집행위원회 정긔회의에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쏘련은 소약국들중의 한나라인 아비씨니야 실례에서 자긔가 이 원측、즉 각국의국가적 독립권과 민족적 평등권 원측에 충직하다는것을 국제련맹에서 시위하엿다。쏘련은 제국주의적 침략배에 대한 자체의 로선을 실제로 시행함에 자긔의 국제련맹에의 참가를 역시 리용하엿다」(1)

브・므・몰로또브는 그때에 말하기를

「이태리와 아비씨니야와의 전쟁은 세계전쟁의 위험이 날로 더 장성되며 일층 더 구라파를 포옹한다는것을 보여준다」(2)라고하엿다。

미・영・불・삼국정부는 자긔의 목전에서 팟쇼강도배가 점々 더 몰염치하게 그 희생물을 삼켜먹는 이때에 한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독일 및 이태리 침략배를 제어(制御)하려고

---

(1) 一九三五—一九三六년부의 브・므・몰로또브 론문연설집、一七六폐지。

(2) 상동、一七七폐지。

는、박탈 당하는 인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려고는、평화를 보전하고 닥처 오는 제二차세계 전쟁을 정지시키려고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안핫다。

오로지 쏘련만이 팟쇼적 침략배의 길을 막으려고 가능한 정도의 만반수단을 다 쓰엇다。쏘련은 협동적 안전보장의 창의자로와 옹호자로서 나섯다。무장해제에 관한 총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一九三三년 二월六일에 벌서 쏘련대표 므·므·리트비노브가 침략과 침공측 판정에 대한 선언서를 채취하자고 제의하엿다。쏘련은 누구가 침공하는자이냐 하는것을 판정하자고 제의할때에、일반적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군비를 최대한도로 축소합에 대한 협약을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가급적으로 정확히 「침공」이란 개념을 판정하며 이리하여 「침공을 변명할 각종의 구실을 밀우 업새치우려는」 그 취지로부터 출발햇던것이다。그러치만 영국과 불란서의 지도하에서 진행된 대회는 이 제안을 거절하엿으며 이리하여 독일 침략에 유익하게 되엇던것이다。

국제련맹에서 므·므·리트비노브의 사회(司會)하에서 쏘련과 그의 대표단이 협동적 안전보장과 공고를 위하여 어떠케 강인하고 장구적인 투쟁을 한것은 주지하는바이다。쏘련 대표단은 전체 전쟁전 시기간에 시종이 여일하게 국제련맹에서 협동적 안전보장 원측을 고수하고저 국제련맹의 매 회의에서、국제련맹네 거이 각 위원회에서 이 원측의 옹호를 절규하는 사자호(獅子吼)를 토하엿던것이다。그러치만 아는바와갓치 쏘련대표단의 목소리는 무인광야에서의 절규와 갓핫다。쏘련정부의 위임을 바다 협동적 안전보장 공고책에 대한 쏘련대표단의 제의안을 一九三六년八월三十일에 국제련맹 비서장 아베놀리씨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국제련맹에서 토의하여달라고 요청한데 대해서는 전세계가 아는바이다。그

려나 이 제의안이 아모 락착도 못엇고 국제련맹의 문서고(文書庫)속에 매장되고 말엇던것도 역시 아는바이다。

그 시긔에 국제련맹을 지도하던 영국과 불란서가 독일침략에 대한 협동적 반격을 주기를 거절함이 명백하엿다。그들이 협동적 안전보장을 거절하는 리유는 이것이 자긔들이 도득(圖得)한 새정책, 즉 독일침략의 「조정(調停)」정책, 히틀러적 침략에 대한 양보정책을 실시함에 방해되는 까닭이엇다。물론 이런 정책이 독일침략을 강화하지 안흘수업섯스되 영·불·지배층은 이것이 위협치 안타고 인정햇던것이다。웨그러냐하면 서구에서의 양보로써 히틀러적 침략을 만족식혀노코 그것을 추후에 동방에로 돌릴수 잇는것이오 그것을 반(反)쏘련무긔로 리용할수 잇섯던 까닭이다。

이·브·쓰딸린은 一九三九년三월에 전련맹공산당(볼세비크)제十八회 대회에서 진술한 결산보고에 히틀러적 침략의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갓치 말하엿다。

「주되는 원인은 다수의 비침략국들, 위선영국과 불란서가 협동적 안전보장정책과 침략자들에 대한 협동적 대항정책을 거절하고 불간섭 립장에로, 「중립적」립장에로 넘어가는데잇다」(1)

미국 긔자 날·쓰텐포—드는 독자들의 리해(理解)를 착난식히고 동시에 쏘련정부를 훼방코저하여 맛치 쏘련정부가 협동적 안전보장의 반대립장에 섯스며 므·므·리트비노브

---

(1)이·브·쓰딸린, 제十八회당대회에서 진술한 전련맹공산당(볼세비크)중앙위원회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레닌주의 제문제」, 五七〇페지。

를 외무인민 위원장의 직위에서 면직식히고 그대신에 브·므·몰로또브를 임명한 리유가 무엇이냐하면 전자가 협동적 안전보장 확고정책을 실시한싸닭이라고하엿다。이 망상적 론단보다 더 어리석은 론단은 상々하기 어려운일이다。물론 므·므·리트비노브가 자긔의 개인적 정책을 쓴것이 아니라 쏘련정부의 정책을 쓴것은 사실이다。다른 방면으로、전체 전쟁전 시기를 통하여 쏘련정부와 그의 대표들、그중에는 므·므·리트비노브도 역시 협동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투쟁한것을 모도다 아는바이다。

외무인민위원장의직위에 브·므·몰로또브를 임명한 리유는 다름이아니라 그 배후(背後)에 미국을 의존한 영국파 불란서가 침략배로 하여금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도록 직접 묵파하고 충동하는 조건하에서 팟쇼적 침략배가 제二차 세계전쟁을 준비하는 복잡다단한환경에서 외무인민위원장의 직위와갓치 책임적인 직위에 므·므·리트비노브보다 더 경험 잇고 국내에서 더 위신잇는 정치활동가를 임명함이 필요하엿음이 아주 명백하엿던 싸닭이다。

서구렬강이 협동적 안전보장 조약을 거절한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이 시긔에는 국제정책의 二개 로선사이에 투쟁이 전개되엇섯다。한 로선은 평화를 위한、협동적 안전보장조직을 위한 자유애호 인민들의 련합적 협력을 침략에 대치하기 위한 투쟁의 로선이엇다。이 로선을 쏘련이 시행하면서 자유를 애호하는 대소국 인민들의 리익을 철두철미하게 또는 강인하게 옹호하엿다。다른 로선은 협동적 안전보장의 거절、침략에 대한 거절의 로선이엇으니 이는 불피코 팟쇼국가들로하여금 그 침략적 활동을 강화하도록 격려하엿으며 이리함으로써 새 전쟁의 죠발(挑撥)을 조장하엿던것이다。

이 모든 사실에서 보이는바와 갓치 력사적 진리는 무엇이냐하면、히틀러적 침략이가

능하게한것은 첫재로 미국이 독일인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독일 침략의 군사적―경제적 토대를 창설하도록 방조하엿고 이리함으로써 이침략을 무장식힌 까닭이오 둘재로 영·불·양국의 지배층이 협동적 안전보장을 거절한때문에 침략을 대항하는 이 나라들의 통일전선이 와해되엿으며 독일침략의 길을 닥고 히틀러로 하여금 제二차세계전쟁을 조발식히도록 도아준까닭인 그것이다。

만일 미국이 히틀러 독일의 중공업에 투자하지 안햇고 영국과 불란서가 협동적 안전보장을 거절하지안코 그와반대로 쏘련과 더부러 독일 침략에 대한 공동반항을 조직하엿더면 엇지되엿슬가?

히틀러적 침략이 충족한 무장을 못가지엿을것이다。히틀러 략탈정책이 협동적 안전보장체제 압착기속에 들엇을것이다。히틀러파가 제二차 세계전쟁을 조발식힐 가능이 최저한도로 떨어들엇을것이다。그리고 만일 히틀러파가 이와갓치 자기들에게 리롭지못한 조건하에서 그래도 제二차 세계전쟁을 조발식혓더면 그들이 전쟁의 첫해에 인차 격파 되엿을것이다。

허나 유감천만으로 전체 전쟁전 시기를 통하여 미·영·불·삼국이 실시한 멸당정책으로 인하여 이러케 되지못하엿다。

근 六년이나 계속되엿으며 수백만의 생명을 삼켜먹은 제二차 세계전쟁을 히틀러파가 쉽사리 조발할수잇게한 범파자는 바로 이자들이다。

二、

독일침략과의투쟁이아니라 쏘련을 절연시키려는정책

「백림—림 추축」이란 명칭하에서 一九三六년도에 군사정치 쁠로크를 결성한 팟쇼국가들에 대하여 영·불·양국의 지배층이 양보와 묵허의 태도를 취한 그것으로써 독일이 침략의 길에 나서도록 의긔를 돗구엇고 충동식혓다는것은 사변발전이 더명백히 증명하엿다。

영국과 불란서는 협동적 안전보장정책을 거절하고 이른바 비간섭정책에 넘어갓으니 이에 대하여 이·브·쓰딸린은 이러케 말하엿다。즉

「불간섭정책을 형식상으로는 다음과가티 평징할수잇다。즉「각나라는 제마음대로 또는 제힘에 맛도록 침략자들로부터 방어하라。우리에게는 아모런 관계도 업는것이오、우리는 침략자들과 또는 그의 희생자들과 장사나 하겟다」。그러나 불간섭정책이 사실에 잇서서는 침략을 묵과하는것이오 전쟁을 전개하는것이다、——때문에 전쟁을 세계전쟁에로 전환시키기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1)

(1)전련맹공산당(볼세비크)제十八회대회에서의 속긔보고문。이·브·쓰딸린「레닌주의제문제」。五七〇페지。

이·브·쓰딸린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가티 지적하엿다。

「불간섭정책의 찬동자들이 시작한 크고도위협한 정치적유희는 그들에게잇서서 대실패로끗날수 잇는것을 반드시 지적해야될것이다。」(1)

사태는 영국과 불란서의 직접 묵허하에서 히틀러가 조발하는 대전쟁에로 나아가는것이 벌서 一九三七년도에 전연히 명백하엿다。

독일을 박멸한후에 쏘련군대가 점취한 독일외무성 문헌은 그당시에 영국과 불란서대외정책의 본의를 폭로식킨다。문헌에서 나타나는바와갓치 영·불·양국 정책의 본의는 침략을 대치한 협동적 투쟁에 자유애호국들의 힘을 단결식힘에 잇은것이 아니라 쏘련을 절연식히고 히틀러를 자긔의 목적실현의 무긔로 리용할 야심으로 히틀러적 침략을 동방에로 쏘련을 대치하여 출동하려는 거기에잇섯다。

이리함에 잇서 영·불·지배자들은 히틀러적 대외정책의 근본방향을 잘 알고잇섯던것이니 히틀러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갓치 쓰엇다。

「우리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전쟁전 시긔에 우리의 대외정책 동향을 의식적으로 지적한다。우리는 六세긔전에 멈춘 그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겟다。우리는 독일인들이 항상 남구라파와 서구라파에 의향을 두던것을 단념하고 금후로는 동방지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우리는 드디어 전쟁전 시긔의 식민지적 또는 무역정책을 파기하고,

---

(1)전련맹공산당(볼세비크)제十八회 대회에서의 속긔보고문。이·브·쓰딸린。「레닌주의제문제」五七二페지。

장래의 지역적 정책에로 넘어간다。 허나 우금에 우리가 구라파에서 새쌍에 대하여 언급할새에 물론 우리는 오직 로시아와 그의 권세하에 처한 인접국가들을 제일착으로 념두에 둘수잇는것이다。 아마도 운명자체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키는것갓다」(1)。 최근싸지도 문헌적배반정책의 책임이 영·불·지배층에게、 쳄벨렌 밋 달라지예 정부들에 잇다고 인정되엿섯다。 미국정부가 독일의 문서고재료를 광포할 임무를 자담하고 문헌조약에 관한 문헌들을 그 문헌집에서 삭제한 그 사실은、 미국정부가 문헌적배반의 주인공들을 청백하게하며 그 허물을 쏘련에 넘겨씨우려고 시도하는것을 증명한다。

영국과 불란서의 문헌정책의 근본의의는 이전에도 벌서 아주 명백하엿다。 허지만 쏘련정부의 손에 들어온 독일외무성 문서고의 문헌은 전쟁전 시긔의 서구라파 렬강의 외교계의 실제적 취지를 폭로식히는 수다한 첨부적 사실을 주면서、 인민들의 운명에 대한 어썬 노름판이 실니엇으며 어써케 몰염치하게 남의 쌍을 매々하엿으며 어써케 암々리에서 세계 지도를 개작하엿으며 어써케 히틀러의 침략을 격려하엿으며 어써케 이 침략을 동방에로 쏘련을 반대하여 돌려노흘 야심으로 정력을 다하엿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는 례컨대 一九三七년十一월 十九일에 오베르살츠베르그에서 독일외상 폰네이라트의 참가하에서 히틀러와 영국대신 할리팍쓰와의 사이에 잇슨 회담긔를 포함한 독일문헌이 증명하여준다。

할리팍쓰는 다음과 갓치 말하엿다。

---

(1)아·히틀러 「마인 캄프」문헌。 一九三六년、七四二폐지。

「그와(할리팍쓰 경(卿)및 긔타 영국정부 각원들은 퓨레르가 독일에 한하여서만 위업을 달성한것이아니라 자긔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숙청한 결과에 공산주의가 서구라파에 밋지못하도록 길을 막아노앗으며 까닭에 독일은 참말 서구에서 볼세비즘을 대치한 능보(稜堡)라고 인정할수 잇다는것을 긍정한다」(1)

할리팍쓰는 영국 총리대신 베를렌의 명의로 지적하기를 만일 독일과 영국이 불란서와 이태리와도 협약을 달성한다면 지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충분한 가능이 잇다고하엿다。

할리팍쓰는 이러케말하엿다。

「독일과 영국이 친근하여진 결과에 「백림——림 추축」이나 혹은 론돈과 파리의 조흔 관계가 상하리라는 인상을 가저서는 안된다。독일과 영국이 친근한 결과에 토대가 준비된 다음에는 四개의 서구강국(2)은 구라파에 장구한 평화를 보장할 그 토대를 협력하여 축성(築成)하여야된다。이 四개국가중에서 어느국가던지 막론하고 이 친선권외(圈外)에 남아잇서서는 안된다。웨그러냐하면 그러치안는 경우에는 현시의 불안정한 형세를 퇴치할수 업을것이다」(3)

---

(1)독일외무성 문서고에서 취한 「오베르살츠베르그에서 一九三七년 十一월 十九일에 독일외상의 참가하에서 퓨레르겸 독일수상과 할리팍쓰 경(卿)파의 사이에 잇슨 회담긔」

(2)四개강국이라함은 영국、불란서、독일 및 이태리를 념두에둔것。

(3)회담긔」를 참조할。

이와가티、할리팍쓰가 一九三七년에 벌서 영국정부의 명의로 「백림——림추축」에 영국과 또는 그와 아울러 불란서도 련합하자고 히틀러에게 제의하엿다。

그랫지만 이 제의안에 대하여 히틀러는 회답하여 성명하기를、자긔생각에는 만일 호상간에 의합하다거나 또는 친밀한 관계가 잇다거나한다면 四개강국사이에 이러한 협약을 달성하기가 아주 쉬운일이겟지만 그러나 독일을 「웰사유조약의 정신상 밋 물질적낙인(烙印)을 금후로는 감당치안는 국가로」간주치 안는다면 문제는 복잡해질것이라고 하엿다。

회담긔에 의하면 할리팍쓰는 이에대하여 다음과가티 대답하엿다。

「영국인은 레알리스트이며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도、억울한 조약의 실수를 반듯이 정정하여야되겟다는 신뢰심을 품엇다。영국은 과거에도 항상 이 레알리즘적 의미로써 자긔의 영향을 파급하엿던것이다。라인주에서 긔한전에 철병하게될때에와 배상문제를 해결할때에와 또는 라인주의 재강점시에 영국이 어떠한 역을 리행하리라는것을 그가 지적하엿다」。(1)

히틀러와 할리팍쓰의 회담긔를 더 참고해보면 단치그、오태리 밋 체호슬로바세야의「회취」에 관한 히틀러의 계획에 대하여 영국정부가 찬동하는 태도를 취한것이 보인다。할리팍쓰는 무장해제와 국제련맹에 대한 문제들을 히틀러와 더부러 토의하고 이문제들을압흐로 더 토의해야겟다고 지적한 연후에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

(1)「회담긔」를 참조할것。

「그남아지 모든문제는 조만간에 생길 구라파질서의 변경문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수잇다。이 종류의 문제는 단치그、오태리 밋 체호슬라바세야 문제이다。영국이 바라는바는 단지 이 변경을 할때에 퓨레르나 다른나라들이 마찬가지로 원치안는 그러한 장차 재변을 니르킬 방법을 회피할수 잇도록하며 또는 평화적 진화방식으로써 하라는 것뿐이다」(1)

보는바와가티 이것은 간혹 정치적 필요로써 그 상대자를 시험해보려는 단순한 속샘이와 가튼 류의 담화가 아니라 히틀러가 자긔의 침략적 탐욕을 제三국의 희생대가로 만족식히려함에 잇서서의 영국정부와 히틀러와의 협정이엇고 밀약이엇던것이다。

이와 련쇄하여 지적할것은 다름아니라 一九三八년二월二十一일에 영국대신 싸이몬이 국회에서 성명하기를 영국은 어느때던지 오태리의 독립에 대해서 특별한 담보를 약속하지 아니하엿다고한 그것이다。이는 고이적 허설이다。웨그러냐하면 이러한 약속은 웰사유조약파 쎈-세르멘조약을 통하여 주엇던것이다。

그때에 또한 영국 총리대신 쳄벨렌은 성명하기를 오태리는 국제련맹측으로부터 하등의 옹호던지 기다리지말라고하엿다。쳄벨렌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우리는 자긔자신도 미혹에 끌어들이지 말어야하되 더구나 소약민족을 국제련맹측으로부터 침략을 대치한 방조를 주리라는 희당으로써 속여서는 아니될것이며 싸

---

(1)「회담긔」를 참조할것。

따서 그와가튼 대책을 쓰지못할것을 아는바、우리는 그에 맛게 행동할수 잇는것이다。」(1)

영국정계의 지도자는 히틀러의 침략행동을 이러케 격려하여주엇다。

쏘베트군대가 백림에서 접취한 독일 문서고에는 역시 一九三八년三월三일에 리벤뜨로쁘의 참가하에서 히틀러와 독일 주재 영국대사 헨젤쏜파의 회담긔(2)도잇다。이회담의 초시부터 헨젤쏜은 그 회담의 신용성을 강조하면서 부언(附言)하기를 회담의 내용은 불란서인에게나 백이의인에게나 포도아인에게나 이태리인에게나할것업시 소개하지안켓다고하엿으며 그들에게는 단지、할리팍쓰와 히틀러와의 담판의 계속으로서의 회담이 잇섯다는것과 또는 회담의 문제를 독일과 영국에 관한것이엿다는것만 말하겟다고 하엿다。

이 회담석에서 헨젤쏜은 영국정부의 명의로 이러케 역설하엿다—

「이일은 무역상 계약인것이아니라 정세의 개선(改善)으로부터 위시하여 새로운 우의(友誼)적 정신을 일맥상통시킴에 이르기싸지 독일과 진정한、충심적인 친선의 긔초를 만들려는 시도이다」(3)

헨젤쏜은 히틀러가 「구라파를 로시아 업시 련합하자」는 요구에 반대하지안으면서 고

---

(1)「타임쓰」一九三八년二월二十三일부 八페지。

(2)독일외무성 문서고에서 채취한 「백림에서 一九三八년三월三일에 독일외상 폰 리벤뜨로쁘의 참가하에서 퓨레르(겸 독일수상)와 영국 대사와의 회담긔」

(3)이상의 「회담긔」에서

백하기를 할리팍쓰가 (그는 이때에 벌서 외무대신으로 임명되엿슴)독일이 구라파에서 지역상 변개를 수행하려는 그 복안에 대하여 벌서 승락을 주엇다고 하엿으며

「영국정부 제의안의 목적은 이러한 가당한 조절에 참여할 그것이다」라고하엿다。

회담긔에 쓰인바와가티 헨젤쏜은 이 즉석에서 말하기를 쳄벨렌이

「만난을 무릅쓰고 협동적 안전보장등파가튼 그런 류의 국제적 언구의 복면(假面)을 벗겨 던젓을쌔에 큰 용긔를 샙내엇던것이다」라고 하엿다。

「싸닭에 영국은 모든 난관을 퇴치하겟다는것을 성명하며 독일도 그와가티 할수 잇는가하는데 대한 여부를 뭇는다」(1)라고 부언(附言)하엿다。

리벤쓰로쁘가 회담에 참가하면서 헨젤쏜에게 고하기를 웨나 주재 영국공사가 오태리 사변에 대하여 쫀 쌔쎈에게 「앗사리한」형식으로 성명하엿다고하니싸 헨젤쏜은 자긔 동료(同僚)가 한말을 조급히 싸돌리면서 성명하기를 「네빌·헨젤쏜 자긔는 매양 오태리의 합병을 찬동햇노라」고하엿다。

전쟁전시긔의 영국외교의 어조는 이러하엿다。

이 협정의 뒤를 니어 벌서 一九三八년三월十二일에 히틀러는 영·불·양국측으로부터 하등의 반항도 업시 오태리를 점령하엿다。 그 시긔에잇서서 오로지 쏘련만이 자긔의 견제의 목소리를 놉혓스며 바야흐로 닥처오는 침략의 위협을 바든 나라들의 독립을 협동적

(1)이상의 「회담긔」를 참조할것。

으로 방위(防衛)하자고 재삼재사 절규하엿던것이다。쏘련은 一九三八년三월十七일에 벌서 각국에 각서를 보내엿으니 그에는 「침략의 거의 발전을 정지시키며 세 세계적 도살장이 열릴 위협이 자라난것을 퇴치할 목적을 가지어야할」(1)그러한 「실지적 방책을 국제련맹내외의 다른나라들과 신속히 토의합에 착수할 의도를 가지엇다」고 쓰엇던것이다。쏘련각서에 대한 영국정부의 대답은 히틀러적 이 침략계획을 영국정부가 방해치안흐려한 것을 증명하엿다。

그 답서에는 쓰이엇으되

「대영제국정부의 짐작가태서는、침략을 반대한 일치동작을 취하기 위한 회의가 기어히 구라파 평화의 전당에 조흔 영향을 줄것은 아니다」(2)라고하엿다。

구라파에서의 독일침략과 전쟁준비의 련환(連環)중 다음 고리는 독일이 체호슬라바세야를 점령한 그것이다。그런데 구라파에서의 전쟁조발의 이중대한 보조(步調)도 히틀러가 영국과 불란서의 직접 지지하에서야만 실현할수잇섯던것이다。

一九三八년七월十일에 벌서 론돈주재 독일대사 직센이 백림에 보도하기를 영국정부가 「독일과의 타협의 강구를 자긔의 강령의 주요한 조항중 하나로 취급하며」또는 「이 정부는 독일에 대하여、영국 정객들의 처분하에 잇는 모든 가능한 수단중에서

---

(1)一九三八년三월十八일부「이스웨쓰찌야」신문。

(2)영국외무성의 一九三八년三월二十四일발 각서。

할수잇는 정도의 그러한 최대의 리해(理解)를 표한다」(1)라고하엿다。

직쎈은 쓰기를 영국정부는

「쏘련을 구라파 운명 해결에 참가치못하도록 제외함에 잇서와 이러한 의미하에서 국제련맹도 역시 제외함에 잇서와 쌍방의 담판과 조약을 체결할 필요에 잇서 독일이 제출하는바 가장 근본적 요구조항들을 리해함에 림박하엿다。」라고하엿다。

직쎈은 또한 백림에 보도하기를 영국정부는 「독일의 긔타의 공정한 요구도 만족시키려는」 의향으로써 큰 희생을 할 결심도 가지엿다고 하엿다。

이리하여、 직쎈이 백림에 전한 보고서들에 현명히 보도한바와가티、 영국 정부와 히틀러의 사이에는 대외정책에잇서 엄청나게 큰 범위를 가진 의미의 합의가 달성되엿던 것이다。

일반이 아는바의 뮨헨 타협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을 회상시킬 필요는 업다。

허나 벨흐떼쓰가덴의 히틀러 관저(官邸)에로 쳄벨렌이 비행긔를 타고와서 히틀러와 면회를 한후 四일이 지나자、 즉 一九三八년九월十九일에 영국정부와 불란서정부의 대표들이 체호슬로바세야 정부로 하여금 주로 쑤제트 독일인이 거주하는 체호슬로바세야 지방을 독일에 넘궈줄것을 강요한것은 니줄수업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러케하지안흐면 맛치 평화를 보장할수업는듯이 또는 체호슬로바세야의 생활

---

(1)독일외무성 문서고에서 취한 「一九三八년六월十일부 제二五八九호 보고서의 부록인 一九三八년 七월十일부 정치적 보고서」

상 리익을 보장할수업는듯이 론증하엿다。독일침략의 영•불•옹호자들은「구라파에서의 조정(調停)의 긔증(寄贈)」(一)으로써 체호슬로바세야 국가의 새 국경을 국제적으로 보안하겟다고 약속하면서 자긔의 배반적 흉계를 은페하려하엿다。

九월二十일에 체호슬로바세야 정부는 성명하기를「이런 성질의 제안을 승락함은 각방으로써 국가를 자원적으로 전신불수화함과 마찬가지일것이다」라고하엿다。체호슬로바세야 정부는 영•불•두정부에 론고하기를「체호슬로바세야를 마비시킨다면 그결과에 전체중구라파와 동남구라파에 심각한 정치적 변동을 초래할것이다」라고하엿다。체호슬로바세야 정부는 그 답서에 다음파 가티 쓰엇다。

「이러케된다면 중구라파와 또는 구라파 전폭에서의 세력에대한 평형이 소멸될것이니 이것은 긔타 각국、특히 불란서에 한하여 조치못한 인파를 초래할것이다」。

체호슬로바세야 정부는 영•불•정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견해를 개정하라고「최후의 호소」를 하면서 지적하기를 이는 비단 체호슬로바세야에게만 한한것이아니라 그의 우방(友邦)들파 또는「세계평화문제와 구라파의 건전한 발전문제」에 한하여 리해관계를 가진 문제라고하엿다。

영•불•통치자들은 고집불통하엿섯다。그 익일에 영국정부는 체호슬로바세야 정부에 회서를 보내엿는데 그에는 쓰이엿으되 영•불•양국의 최초 제의에 대한 답서를 체호슬로

(一)Correspondence respecting Czechoslovakia, September 1938, London, 1938, cmd 5847. P. 8-9.
(체호슬로바세야에 관한 서신、一九三八년九월、八—九페지、론돈。)

바세야 정부가 취소하라고 제의하엿으며 영국정부는 이로 인하여 장차로 변경될 정세에 대한 책임을질수 업스니까 이런 정세를 지어노키전에 「신속히 또는 신중히 고려해보라」고 제의하엿다。영국정부는 지적하기를 체호슬로바세야가 제출한바 중재조정안(中裁調停案)이 우금에 가당하다고 그는 미들수업다고하엿다。이 영국 각서에는 지적하엿으되「독일정부는 체호슬로바세야정부가 제의하는바의 중재조정으로써 해결할수잇다고까지 정세를 인정하리라」는것을 미들수업다고하엿다。

결말에 영국각서는 위협적으로 경계하기를 체호슬로바세야 정부가 만일 영국의 권고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체호슬로바세야 정부가 「추후에 필시 니러날수잇는 사변에잇서서 해당하다고 자인하는 그런 임의의 동작을 취할 자유를 반드시 가질것이다」라고하엿다。

一九三八년九월二九—三〇일에 진행된 히틀러、챔벌렌、무쏠리니 및 달라지예의 문헨협약은 진작부터 평화를 반대한 협정의 주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십분 동의를 어덧던 그 수치스러운 협정의 완수이엇다。체호슬로바세야의 운명은 그의 참가업시 해결되엇다。체호슬로바세야 대표단을 문헨에 초청(招請)한것은 그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 호상간의 협정 결과를 온순히 기다리게한것뿐이엇다。

영국과 불란서의 모든 행동을 통찰한다면 체호슬로바세야 인민과 그의 공화국에 대한 영・불・양정부측의 한심한 배반행동이 이 국가들 정책에 잇서서 우연적 에피소드가 아니엇으며 히틀러적 침략의 시첨(矢尖)을 쏘련에 돌리려는 목적을 가진 그 정책의 중요한일환(一環)이엇다。

문헨협정의 본의는 그때에 벌서 쓰딸린동무가 폭로식혓으니 그는 말하기를

「쏘베트련맹과 전쟁을 개시하겟다는 서양의대세로 체호슬로바세야의 일부령토를 독일사람들에게 준것이다」(1)라고하엿다。

이 시긔의 영·불·지배층의 이정책의 내막은 이·브·쓰쌀린이 一九三九년三월에 전련맹공산당(볼세비크) 제十八회대회에서 폭로하엿다。 이·브·쓰쌀린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불간섭정책이 사실에잇서서는 침략을 묵파하는것이오 전쟁을 조발하는것이다、——쌔문에 전쟁을 세계전쟁에로 전환시기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불간섭정책에는 침략자들이 흉악한일을 감행하는데 방해를 세치지말며 말하자면、일본이 중국과、그보다 더 나흔것은 쏘련과 전쟁에 얼키게되는데 방해하지말며、말하자면、독일이 구라파사건에 결속되어서 쏘련과 전쟁에 얼키게되는데 방해하지말며、참전국 전부를 전쟁의진구렁에 깁히싸지도록하며、이러케하는데 잇서서 그들을 은근히 장려할것이며、저히세리싸와서 쇠약해지고 피떼케할것이며、그리하여 그들이 충분하게 쇠약해진 그새에——새력량으로 무대에나서서、물론「평화의 편으로」나서서 쇠약해진 참전국들에게 자긔의 요구 조건을 강요하려는 경향과 욕망이 일관된것이다」(2)

(1)전련맹공산당(볼세비크) 제十八회대회 속긔보고문。
이·브·쓰쌀린「레닌주의 제문제」十一판、五七二페지。

(2)전련맹공산당 (볼세비크) 제十八회대회 속긔보고문。
이·브·쓰쌀린 「레닌주의 제문제」十一판、五七〇—五七一페지。

세계각국、그중에는 미국、영국 및 불란서 민주층은 문헨협약을 분개로와 극단적 비란으로써 론평하엿다。영・불・지배층의 문헨적 배반에 대한 이 민주층의 태도에 대하여는 례컨대 미국에서 발간된 쎄이엘쓰와 칸의 공저（共著）「쏘베트로서아를 대치한 비밀전쟁」이란 책의 일편을 인용하여도 알수잇다。이 책의 필자들은 문헨에 대하여 다음과 가티 쓰엇다。

「나치쓰트적 독일、팟쇼적 이태리、영국、불란서정부는 문헨협약에 조인하엿다。이리하여 세계적 반동세력은 一九一八년부터 진작 동경（憧憬）하던 반（反）쏘「신성동맹」에 대한 숙망을 실현하엿다。이 협약이 로시아에는 동맹국이 업게 만들엇다。쏘・불・조약（구라파에서 협동적 보안의 초석（礎石）인）은 매장되엇다。체히야의 쑤제트지방은 나치쓰트 독일의 령지로되엇다。히틀러 도당에게는 동방에로 나갈 관문이 훨적 열려지엇다」（1）

모든 대렬강중에서 오직 쏘련만이 체호슬로바세야 비극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체호슬로바세야의 자주권과 민족권을 옹호하여 적극적으로 출연하엿다。영・불・량정부는 세계공론의 압헤서 구구히 변명해보려고 가식적으로 성명하기를 맛치 자긔들은 쏘련이 체호슬로바세야에 대하여 그 불침범조약의 임무를 실행할런지 모른다고하엿다。허나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것이다。웨그러냐하면 쏘련은、불란서도 역시 체호슬로바세야를 위하

（1）므・쎄이엘쓰와 아・칸의 공저・「쏘베트로시아를 반대한 비밀전쟁」、一九四六년、보스톤 三二四—三二五페지。

5-311

여 동시적으로 진출함을 요하는 이 조약의 조건에 의하여 독일을 반대하고 체호슬로바세야를 위하여 진출하겟다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성명하엿던것이다。 그러나 불란서는 이 조약 조건에 의한 자기의 의무실행을 거절하엿다。

이러하엿음에 불구하고 쏘련정부는 문헨협정직전에 다시금 성명하기를 체호슬로바세야에 실제적 방조를 주기 위하여 평화보장의 실제적 방책을 채택하기 위하여서는 그는 국제회의를 소집하자고하엿다。

체호슬로바세야의 점령이, 사실로 되어지고 제국주의적 정부들이 연니어 그 단행된 사실을 수긍(首肯)하던 그때에 쏘련정부는 三월十八일발 각서를 통하여, 영국파 불란서의 협조하에서 히틀러적 독일이 실현한 체호슬로바세야 점령은 폭력과 강압과 침략의 만행이란 낙인(烙印)을 찍엇다。 쏘련정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역시 지적하기를 독일의 행동은 전반적 평화의 위반을 발단하고 강화하엿으며 「중구라파에서 정치적 안전을 위반하엿고 진작부터 구라파에서 조성된 경동상태의 요소를 증장하엿으며 인민들의 태평감(太平感)에 새 타격을 주엇다」(1)라고하엿다。

사태는 체호슬로바세야를 히틀러에게 내어맛김에만 국한되지안앗다。 영•불•량정부는 피차간에 히틀러 독일과 광범한 정치적 협약을 서명하기에 조급해하엿다。 一九三八년九월三十일에 문헨에서 쳄벨렌과 히틀러가 영•독•선언서를 서명하엿는데 그에는 이러케 말하엿다。

(1)「이즈웨쓰찌야」신문 一九三九년三월二十일부。

「우리는 금일 회담을 속행하엿는바 영・독・관계문제가 양국과 구라파에 한하여 우선적 의의를 가지엇음을 일심으로 신뢰하게되엇다。우리는 작일저녁에 서명된협약과 영・독・해상협약이 우리양국 인민이 어느때던지 호상간에 싸호지안흐리라는 그 요망의 표중이라고 간주한다。우리는 양국에 관한 다른 문제들도 감찰할 의도를 가지엇으며 서로 서로 의론해감으로써 장차로 어떠한 의견상위의 원인이라던지 다 근절하려하며 이리함으로써 구라파에서의 평화보장에 협조하려고 한다」(1)

이것은 영국과 독일의 호상불침범에 대한 선언서이엇다。

一九三八년十二월六일에 영・독・선언서와 가튼 본네와 리벤뜨로쁘의 불・독・선언서가 조인되엇다。이 선언서에는 성명하기를 독・불・양정부가 일심으로 신뢰케된바는 다름아니라 독일과 불란서 호상간의 평화적 및 우방(友邦)적 관계는 구라파각국의 호상관계 조성에 잇서와 전반적 평화보전에잇서 주요한 전제조건중 하나가된다고하엿다。때문에 양국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두나라사이에서 지지하기위하여 전력을 다하겟다고하엿다。선언서는 론파하기를 불란서와 독일사이에는 판도(版圖)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쟁론문제가 더는 업다고、또는 두나라사이의 현존국경은 영구한 국경이라고하엿다。결말에 와서 선언서는 성명하기를 양국 정부는 제三국과의 특별관계에는 멈추지 안흘지나 양국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잇서는 호상간에 련락을 취할것과 또는 만일 이 여러문제가、그 장차발전

(1) 대외정책과 지지(地誌)문서고。
(«Archiv für Aussenpolitik und Länderkunde», September, 1938, s. 483.)

에 잇서서 국제적 교란(攪亂)을 니르킬수 잇는 경우에는 호상간 협의할것을 굿게 결의한다고하엿다。

이것은 불란서와 독일의 호상불침범에 대한 선언서이엇다。

사실에 잇서서는 이 여러 협약의 서명은 영국이나 불난서가 독일과 더부러 불침범조약을 서명하엿음을 의미한다。

히틀러 독일파의 이 여러협약에는 영국과 불란서 양정부가 자국에 향한 히틀러적 침략이 위협을 돌려노으려고합이 전연 명백히 발로되거니와 이것은 뮨헨조약과 밋 긔타 동쪽의 협약들이 벌서 히틀러적 침략이 동방에로、쏘련방향에로 나아가게 관문을 열어주엇다는것을 라산합에서 나온것이다。

이러케 「로시아가 업시 구라파를 련합」합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이 조성되엿던것이다。

이리하여 쏘련을 전연히 절연시키려는데로 사태가 돌아갓다。

三、

쏘련의 절연。 쏘·독·불침범조약

팟쇼독일은 체호슬로바세야를 점령한후에 벌서 전세계의 안전에서 공개적으로 그 전쟁을 준비하엿다。 영국과 불란서가 협조(協助)하는 히틀러는 구라파의 평화조절문제의 찬동자라는 외식(外式)과 허위(虛僞)를 버리엇다。 전쟁전(前)의 처참(悽慘)한 시일은 닥처왓다。 그때에 벌서 미증유한 전화(戰禍)가 인류에게 나날이 림박하는것이 명백하엿다。

그때에 쏘련을 일방으로한 그 정책과 영국과 불란서를 타방으로한 그 정책이 어떠하엿든가?

미국의 력사 위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지안으려는 책동은 저들의 량심이 깨끗지못함을 증명하여줄뿐이다。

사실은 이러하다。 전쟁이 림박하던 一九三九년도 봄과 여름의 불운(不運)의 시긔에 미국지배층의 지지하에서 영국과 불란서는 그 정책의 이전 방향을 계속하엿다。 이것은 히틀러 독일을 쏘련에 달려들도록 선동하는 정책이니 긔만을 목적한 이 정책은 쏘련과 합작함에 준비되엿다는 허위적(虛僞的)언사에 엄폐되엿을뿐만아니라 또는 히틀러 독일이 수행하고잇는 정치적 방향의 본질을 약간의 단순한 외교적술책에 의하여 인민의 사회적 여론에서 은폐하려는것이엇다。

이런 휼책은 우선 영국과 불란서가 쏘련과 진행하려던 一九三九년 교섭이엇다。 영·불·지배층은 사회적 여론을 긔만하기 위하여 이 교섭을 히틀러적 침략을 더욱더 전파

함에 저해할 신중한 책동으로 표시하려고 시도하엿다。그런데 사변의 일체 추후행정에서 표명된바와가티 이 교섭은 영·불·측에 대하여는 맨처음부터 그 이중유희(二重遊戲)의 순차적 보조일뿐이엇다。

이 사실은 히틀러 독일의 지배자들에게도 역시 명백하엿다。그들에게 잇서서는 영국 및 불란서 정부가 책동한 교섭의 진의(眞意)가 비밀이 안인것은 물론이엇다。례하면 이 사실은 론돈 주재 독일대사 질크센이 독일외무성에 보낸 一九三九년 八월三일발 보고서에 기록되엇는데 이에 대하여는 히틀러 독일을 박멸할때에 쏘련군대가 빼앗슨 제문건이 증명하여주는바이다。즉

「최근 수개월간에 기타국가와의 교섭은 독일과 참으로 화해할 예비적 수단인것이며 또는 이 교섭은 극이 중요하고 고십할 가치잇는 목적 즉 독일과의 협약이 성취된다면 곳 취소될것이라는 감(感)이 이에서 지배하고 잇다」。

론돈에서의 정세를 감찰하던 일체 독일외교가들은 이 의견에 확실히 동의하엿다。

질크센이 백림에 부송한 다른 비밀보고서에는 다음과가티 쓰이엇다。

「영국은 무장함으로써와 동맹국들을 어듬으로써 강하려고하며 또는 추축국과의 동등한 지위에 처하려고 원하는 동시에 그는 협의방식으로 독일과 우의적(友誼的)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한다」(1)

---

(1)「론돈에서 내가 근무할때에 독일과 영국간의 정치적 관개의 발전에 대하여」란 질크센의 수기(手記)는 一九三九년 九월에 작성하엿슴。

력사 훼방자들과 위조자들은 이 문건을 감추려고 시도한다。 이 제문건은 전쟁전 수개월간의 정세를 표명하는바 이 정세를 정당하게 평가하지안코는 전쟁전긔의 실제적 력사를 리해할수업기때문이다。 쏘련과 교섭을 개시하면서 또는 파란、루마니야 및 약간의 긔타 국가들에 안전보장을 약속하면서 영국과 불란서는 미국 지배층의 지지하에서 쏘련을 대치하여 히틀러 독일의 침략을 동방에로 돌릴 목적을 가지고 독일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한 이중유희를 놀앗던것이다。

영국과 불란서를 일방으로하고 쏘련을 타방으로한 그들간의 교섭은 一九三九년 三월에 시작되어 근 四개월간이나 계속되엇다。

쏘련은 최후시각에 와서라도 구라파에서 전쟁을 폭발하지못하도록 독일을 제어할수잇는 광범하고 평등적인 협약을 서구렬강과 성취하려고 열중하는것과 또는 미국이 지지하는 영·불·양정부는 극히 다른 목적을 가지엇던것을 이 일체 교섭행정은 판명하엿다。 남의 불에 게잡이하는데에 관습된 영·불·지배층은 이번에도 닥처오는 히틀러적 침략을 배제함에 잇서서 희생의 일체중하를 쏘련에만 부담하는 그러한 의무를 쏘련에 강제압부하려고 시도하엿으며 또 영국과 불란서는 쏘련에 대하여 어써한 의무도 도모지 자담하지안흐려고 하엿던것이다。

만일에 영·불·지배자들이 이 흉책을 성취하엿더라면、저들은 가급적으로 신속히 독일과 쏘련간의 전쟁을 일으키려던 그 긔본목적 실천이 아주 갓가워지엇을것이엇다。 그런데 쏘련정부는 이 음모를 알아내엇다。 그는 일체협의 단계에 잇서서 구라파헤서 평화옹호문제에 대한 유일한 목적을 가진 그 공개적 명확한 제안을 서구열강의 외교적 흉책과 간계에 대립식히엇다。

그새 교섭의 일체 장면을 회상할 필요가 업는것이다。 오직 약간의 중요한 모멘트만 반듯이 긔억식히려한다。 이 교섭에서 쏘련정부가 제긔한 그 三개조건을 긔억식히여도 넉넉하리라고 한다。 침략을 대치한 영・불・쏘・간의 실효잇는 호상원조조약체결、영・불・쏘련측으로부터 중부구라파와 동구라파 제국가(그중에는 쏘련과 린접한 구라파나라들을 죄다 너헛슴)의 안전보장、침략국들이 침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할 제국가 밋 상호간에 긴급히 실효잇게 원조할 형식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군사협약을 영・불・쏘・간에 체결할 것이다(1)。

쏘련 최고쏘베트 제三회 정긔총회에서 一九三九년 五월三十一일에 브・므・몰로또브는 지적하기를、이 교섭시에 제긔한 약간의 영・불・제안에는 온갖 동등한 협약에 반듯이 잇서야할 상호원측(相互原則)과 동등임무원측이 결핍되엿다고 하엿다。

브・므・몰로또브는 말하기를、「저들과 파란파의 상호원조조약에 의하여 침략국들의 직접 침공으로부터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는 침략국들이 파란과 루마니야를 침공하는 경우에는 저들이 쏘련의 방조를 바드면서 영국인과 불란서인들은 침략국가들의 편으로부터 쏘련을 직접 침공하는 경우에는 쏘련은 자연히 영・불・측의 방조를 바들수 잇겟는가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엿으며 이와 함께 만일 쏘련과 린접한 서북략소국들이 침략국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 중립을 자긔의 힘으로 고수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영국과 불

(1)쏘련 최고쏘베트 제三회 정긔총회에서 一九三九년 五월三十一일에 진술한 브・므・몰로또브의 보고를 참고하라。

란서가 이 략소국들의 안전보장에 참가할수잇겟는가하는 그문제도 역시 해결하지안엇던것이다。이와가티 쏘련에 대하여는 불평등한 정세가 조성되엿다」고하엿다。

영·불·대표들은 침략가들이 직접 침공하는 경우에는 상호조건하에서 영·불·쏘·간의 호상원조원측을 지어 말로는 동의하면서 이와함께 이 국가들은 이 협약을 지상공문이 되게할 여러가지 형식적 조건을 만들어노앗던것이다。

이 외에도 영·불·제안은 영국인과 불란서인이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준 그 국가들에게는 쏘련측의 방조를 론급하엿으나 그러나 저들은 쏘련의 서북국경에 잇는 나라들 즉 발씩해연안국가들을 침략국들이 침공하는 경우에 저들이 이 나라들에 방조를 줄데 대하여는 아모것도 말하지아니하엿다。

상술한 작량(酌量)으로부터 출발하면서 브·므·몰로또브는 쏘련은 그의 국경서북부와 린접한 나라들에 관한 이러한 안전보장이 업시는 다른 나라들에 관한 의무를 자담할수업다고 성명하엿다。

모스크바 주재 영국대사 시이드스는 一九三九년 三월十八일에 히틀러 침략이 루마니야를 대치하는 경우에는 쏘련이 어떤 립장을 취하겟는가고 쏘련외무인민위원장과 질문하면서 히틀러적 이 침략준비에 관한 재료들이 영국인들에게 잇다고하엿다。그런데 이러한 정세가 잇을새에 영국의 립장은 어떠하겟는가함에 대한 문제를 쏘련측에서 제긔하엿는데 시이드스는 루마니야가 지리상으로 영국보다 쏘련에 더 갓가히 잇슴을 보고 이에 대한 대답을 피하엿다。

이와가티 벌서 첫거름부터 영국 지배측에서는 일정한 의무를 쏘련에 부담식히고 저들

은 하등의 의무도 자담하지안으려는 욕망이 표명되엿다。이 무지(無智)한 방식은 추후에 일체 교섭행정중에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중복되엇던것이다。

쏘련정부는 영국 질문에 대답하여 가장 리해관계를 가진 제국가 즉 영국、불란서、루마니야、파란、토이기 밋 쏘련의 대표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의견을 제출하엿다。쏘련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회의는 그 회의의 일체 참가국의 실제적 정세를 해명(解明)하고 그 립장을 판정할 거대한 가능을 줄수잇는것이다。그런데 영국정부는 쏘련의 제안이 아직 일즉하다고 대답하엿다。

영국정부는 침략을 대치한 구체적 투쟁방책을 협의할수잇는 회의를 소집할 대신에 一九三九년 三월二十一일에 쏘련정부에 영국과 함께 또는 불란서와 파란과함께 선언서에 서명할것을 제의하엿는데 그 선언서에 서명할 정부들은「어떠한 구라파국가던지 그의 독립」을 위협하는 경우에는「일반적 반항대책을 반듯이 취해야할 그방침을 협의할」책임을 부담할 그것을 제의하엿다。영국대사는 그 제안을 채취할수잇다고 증명하려고하면서 특히 선언서에는 의무를 적게 부담식히는 론조가 긔입되엇다고 강조하엿다。

이런 선언서는 침략가들측으로부터 닥쳐오는 위협을 대치할 신중한 투쟁수단이될수업는것은 명백한바이엇다。그런데 비록 적게 약속하는 이런 선언서라도 침략국들을 제어하는 방면에 잇서 압흐로 약간의 보조가 될수잇다고 생각하면서 쏘련정부는 영국 제안을 채취하기로 승락하엿다。그랫지만 一九三九년 四월一일에 벌서 모스크바 주재 영국대사는 영국에서는 공동선언서에 대한 문제는 취소된것으로 인정한다고 보도하엿다。

二주일을 더 지체한후에야 영국외무대신 하리팍스는 모스크바 주재 그 대사를 걸처 쏘

면 정부에 새 제안을 제출하엿는데 그 제안에 의하면 쏘련정부는『쏘련과 린접한 어느 구라파국가를 대치한 침략적행동이 잇는 경우에는 만일 쏘련정부의 원조를 희망한다면 그 원조를 긔대할수잇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라는 그것이다。

이 제안의 주요한 의미는、라트비야、리트바、에스토니야、분난을 대치하는 독일의 침략행동이 잇는 경우에 쏘련은 이 나라들에 영국측으로부터의 원조에 대한 하등의 의무서도 업시 반듯이 원조해야함에 즉 독일과의 일대일(一對一)전쟁을 개시함에 잇는것이다。영국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파란과 루마니야를 두고 말할진대 이경우에 잇서서 쏘련은 반듯이 침략가를 대치하여 그 나라들을 원조하여야 될것이엇다。그러나 이 경우에 잇서도 파란과 루마니야 또는 발찍해연안국가들에 대한 쏘련의 아모러한 의무도 부담되지아니한것은 막론하고라도 영국은 쏘련과 함께 어썬 의무도 자담하지 안흐려고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무대를 남겨두려고하엿다。

그런데 쏘련정부는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한 공동투쟁협약을 긔타 제강국과의 달성할 한가지 가능이라도 빼어노치 안으려고하엿다。쏘련정부는 조금도 지체하지안코 영국정부에 대안(對案)을 제출하엿다。이 제안은、첫재로 쏘·영·불·은 이 국가들중 어느 국가를 대치한 침략이 잇는 경우에는 상호간 서로 긴급히 각종 원조(군사적 원조쌔지)를 줄것을 담임할것、둘재로 쏘·영·불·은 발찍해와 흑해간에 노히어잇고 쏘련과 린접한 동구라파국가들에、만일 이 국가들을 대치한 침략이 잇는 경우에는 각종 원조(그중에는 군사적 원조쌔지)를 줄것、내종으로、셋재로 쏘·영·불·은 상술한 두가지 경우에 잇서서 이 국가들중 각개 국가를 원조해야할 군사적 원조의 범위와 형식

을 단기간에 설정할것을 부담함에 잇섯다。

쏘련제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러한것이엇다。 쏘련제안과 영국제안의 기본적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렵지안타、웨그러냐하면 쏘련제안에는 침략을 공동적으로 배격함에 대한 실효잇는 여러방책이 실제로 포함된싸닭이다。

영국정부측에서는 三주일간이나 이 제안에 대하여 아모 회답도 업섯던것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중장하는 불안을 일으키엇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국정부는 사회적 여론을 긔만할 당면휼책을 결국 섬여내게되엇다。

五월八일에 모스크바는 영국의 회서(回書)、즉 더 자세히 말하면 영국의 반제안(反提案)을 바닷다。 영국은 쏘련정부로하여금 또다시 일방적(一方的)성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엿으니 그 성명서는 쏘련정부가 「영•불•이 부담한 의무를 백이의、파란、루마니야、희랍 및 토이기에 대하여 실행하고저하여 전투동작에 참가하게되는 경우에는」「긴급한 원조(만일에 이 원조가 요구된다면、이 원조의 종별과 조건은 협정의 대상이될수잇슴)를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할수잇도록하는것이엇다」。

이 제안에도 역시 쏘련의 일방적 의무에 대하여만 언급한것이엇다。 쏘련은 영국과 불란서에 방조할 의무를 부담하고잇서야 하지만、이 나라들은 손수 쏘련압헤서 발찍해연안제공화국에 관한 아모 의무도 절대로 자담하지아니하엿다。 이와가티 영국은 쏘련으로 하여금 임이의 독립국가던지 가히 용납할수업고 접수할수업는 불평등적 지위에 처하는 그런 제의를 하엿던것이다。

실제로 영국 제안은 모스크바에로 바루 향한것이 아니라 백림에로 향하엿던것을 십

게 리해할수잇다。쏘련을 침공하라고 독일인들을 초대하엿으며 또 만일 독일이 발찍해연안을 거처서 침공하는 경우에는 영국과 불란서는 중립을 보존할것을 독일인들이 깨달게 하엿다。

五월十一일에 이르러 쏘·영·불·간의 교섭은、「파란은 쏘련과의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할수업다…」라는 모스크바 주재 파란대사 그르시봅쓰세의 성명에 의하여 더욱더 착잡하게되엿던것이다。

물론 파란대표의 이러한 성명은 영국과 불란서의 지배층의 지시로와 찬동하에서만 제출할수잇는것이엇다。

모스크바 교섭시에 취한 영국과 불란서 대표들의 행동은 어찌나 악선동적 성질을 띄엇던지 심지어 서부열강의 지배층에서도 이러한 추악한 희극을 엄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잇섯다。례하면 一九三九년도 여름에 로이드 죨즈는 불란서 「세·수아르」 신문에 영국정계의 지도자들을 반대하여 엄하게 비판하는 론문을 썻던것이다。쏘련과 영·불·의 협의가 지리하게 쓰으는 리유에 관하여 로이드 죨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가지 대답만을 줄수잇는것이다고 썻다。즉

「네윌 쳄벨렌、할리팍스 밋 죤·사이몬등은 로시아와 어썬 협약이던지 원하지안는것이다」。

물론 로이드 죨즈가 이 사실을 안것만큼 보담 못하지안케 히틀러 독일의 주재자（主宰者）들도 알앗으니、저들은 서부열강이 쏘련과 신중하게 협약을 체결하려고는 생각조차 하지안엇고 그리고 아주 다른 목적을 도달하려는것을 리해하게되엇다。이 목적은 히틀러

로 하여금 쏘련을 신속히 침공하도록 충동함에 잇으니 이는 독일과 전쟁하는경우에는 쏘련에 극히 불리한 조건을 자허주어 맛치 이 침공에대한 히틀러에게 상여금을 보장하여주는듯이되엇다。 황차 서부열강은 여러가지 사소한 개정안과 무수한 초안을 제긔하면서 근본 제문제를 소해하려고 책동하면서 쏘련과의 교섭을 끗업시 연체하엿다。 어썬 실제적 의무에 대하여 언급할쌔에는 번번히 이 열강의 대표들은 맛치 그 문제를 리해하지못하는듯이 행동하엿다。

五월말에 영국과 불란서는 새 제안을 내세웟는데 그 제안은 압서 제안보다 좀낫으나 쏘련의 서북국경에 노힌 三개의 발씩해연안공화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 즉 쏘련에 대한 극히 중대한 문제를 의연히 미결한대로 남겨 두엇다。

이와가티 자국의 사회적 여론에 제압을 바다 말로는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영·불·대표들은 자긔들의 이전 립장을 계속주장하면서 쏘련에 한하여 접수할수업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의적으로 제안에 너으려하엿던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교섭시에 영·불·대표들의 행위는 어찌나 참을수업섯던지 브·므·몰로쏘브는 一九三九년 五월二十七일에 영국대사 시이드스와 불란서 대변사(代辯使)파이아르에게 이러케 선언하게되엿다。 즉 그들이 제출한 구라파에서 침략국들에게 줄 협동적 반공격에대한 협약초안은 쏘련、영국 불란서간의 실효잇는 호상방조 계획이 포함되지아니하엿스며 쏘 영국과 불란서는 심지어 쏘련과 체결할 해당한 조약에 대하여 신중한 리해관계싸지도 가지지안엇다는것을 확증하는바이라하엿다。 이에 잇서 영·불·제안은 영·불·정부가 그 조약에 리해관계를 가진다하기보다 조약에 대한 말공부에 리해관계를 더 둔것을 연

상케한다고 직접 성명되엇다。 필시 이 말공부는 어썬 목적을 달하기에 영국과 불란서에게 요구되엇겟지만 그러나 쏘련정부는 그 목적을. 알수업다。 쏘련정부는 조약에 대한 말공부에가 아니라 쏘련、영국、불란서가 구라파의 침략국들을 대치하여 실효잇게 상호원조할 그 조직에 리해관계를 가지엇다。 쏘련정부는 쏘련이 알수업는 그 목적을 가진 조약에 대하여 공론합에 참예할수업스니、이런 공론은 쏘련보다 더 적당한 동배(同輩)와 진행할수 잇다고 영·불·대표들에게 주의를 주엇던것이다。

모스크바의 교섭은 무한히 지리하게도 쓰으러갓다。 이 교섭이 지리하게 쓰으는 리유에 대하여는 론돈「타임스」신문은 이러케 루설하엿다。「로시아와의 긴급하고도 단호한 련맹은 다른 교섭에 저해할수잇다。:」(1)「타임스」신문이 보도한바의 이「다른 교섭」이란 아마도 영국이 히틀러독일에 대부한 거액의 차관문제에 잇서서 영국 해외상업대신 로베르트 하드손이 히틀러의 경제고문관 헬무트·월타트와의 협의를 렴두에 둔것이니、이 사실에 대하여는 차차 언급할것이다。

이외에 주지하는바와가티 히틀러 군대가 프라가에 침입한 날에 출판물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상업련맹의 사절단은 듀셀도르프에서 독일 대공업파의 광범한 협약체결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엿다。

그외에도 또 주목되는바는 모스크바에서 영국의 명의로 진행된 교섭은 중요치아니한 인물들에게 위임되엇지만 동시에 히틀러와의 교섭하기 위하여는 영국으로부터 독일루 첨

---

(1)세이예르스 밋 칸 저 「쏘베트 로시아를 대치한 비밀전쟁」、모스크바、一九四七년、三七一페지。

벨렌 자신이 갓댓고 또는 한번만 간것이아니다。 쏘련과의 교섭시에 참가한 영국대표 스트렌그는 쏘련과의 어썬 협약에던지 서명할 전권도 가지지못하엿음을 또한 지적함이 중요하다。

가상적 침략국들을 대치할 투쟁방책에 관한 구체적 교섭에로 넘어가자는 쏘련의 요구에 의하여 영·불·정부는、 할수업시 모스크바에로 군사사절단을 보내기로 승락하엿다。 그런데 이 사절단은 몹시 오래동안 모스크바루 왓으며 또 그들이 온것을 보니싸 이 사절단은 중요치못한 인물들로 성립되엿고 그리고 어썬 협약에던지 서명할 전권도 가지지못하엿던것이다。 이 조건하에서는 군사상 교섭도 정치상 교섭과가티 아모 결과를 주지못하엿다。

서구열강의 군사사절단은 독일이 침략하는 경우에 잇서서 저들은 상호원조수단에 대하여 신중한 토의를 원치안는다는것을 단번에 보이엿다。 쏘련 군사사절단은、 쏘련은 독일과 린접한 공통한 국경이 업슴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쏘련군대가 파란지역을 넘어서야 되는 조건아래에서만 영국、 불란서、 파란을 방조할수잇다고 제의하엿다。 그런데 파란정부는 그가 쏘련의 군사적 방조를 원치안는다고 성명하엿다。 이리하여 파란정부는 히틀러적 침략보다 쏘련의 강화를 더 두려워함을 보이엿다。 파란의 립장은 영국 사절단이나 불란서사절단이나 다 지지하엿던것이다。

군사상 교섭 행정에 잇서서 협약의 참가국들은 침략이 잇는경우에 긴급히 출동해야할 군력수효에 대한 문제를 역시 제출하엿다。 그때에 영국인들은 五개의 보병사단과 一개의 긔계화사단을 내세울수잇다는 가소로운 숫자를 말하엿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쏘련이 침략가들을 대치한 전선에 一百三十六개 사단、 중(中)대포와 중(重)대포 五千문、 전차와 소전차 근 一萬대、 비행긔 五千대이상등등을 출동하기에 준비되엿노라할때에 그러케 제의하엿던것

이다。이점에서 얼마나 영국정부가 쏘련파의 군사상 협약체결에 대한 교섭에 대단히 경솔하게 판계한다는것이 보이엿다。

이상에 지적한 재료는 불문가지의 결론을 지흠에 넉넉한것이니, 그 결론은 다음과 갓다。

一。쏘련정부는 일체 교섭행정에서, 평등원측에서 또는 상호원조가 실효를 낼수잇는 조건하에서, 다시말하면 정치적 조약체결과 아울러 방조의 범위, 형식 및 긔한을 설정한 군사상 협약서명이 수반(隨伴)할 그러한 조건하에서 침략을 대치한 호상방조 협정을 영국과 불란서와 달성하도록 특별한 인나성을 발휘하엿으니, 이것은 지나간 일체 사변행정은 오직 이러한 협약만이 실효가 잇는것이며 또 수년간 나려오면서 서구열강의 아모러한 처벌도업시 묵과하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히틀러적 침략가들로하여금 깨달게할수잇다는것을 충분히 보이엿다。

二。쏘련파의 교섭행정에서 취한 영국과 불란서의 태도는 저들이 쏘련과 신중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지안는것을 확증하엿다。웨그러냐하면 영·불·정책은 평화적 리해와 침략파의 투쟁에 잇서서 아모 공통성이 업는 다른 목적을 내세웟기때문이다。

三。영·불·정책의 교활한 홀게는 쏘련에는 동맹국이 업슬뿐아니라 쏘련은 절연되어잇슴으로 히틀러는 영국과 불란서측의 반공격을 당하지안코 위험업시 쏘련을 공격할수잇다는것을 히틀러로 하여금 리해케함에 잇다。

이런까닭에 영·불·쏘·협약이 파탄된것에 대하여 의아할바가아니다。

물론 이 파탄은 우연적이 아니엿다。교섭의 파탄은 서구열강의 대표들이 그 二중유희로서 예정한 계획임을 표명하엿다。영국인들은 쏘련파의 공개적 교섭을 진행함과함께 독일파

외• 비•밀•교•섭•을• 수•행•하•엿•고• 그•리•고• 영•국•인•들•은• 후•자•에•게• 비•교•할•수•업•시• 더• 큰• 의•의•를• 주•엇•음•에• 일•은• 잇•섯•던•것•이•다•。

만일 서구열강의 지배층이 모스크바 교섭으로서 우선 제나라의 사회적 여론의 경성심을 마비하고 전쟁에 처녀흘 인민을 긔만하려고 욕망하엿다면 히틀러와의 협약은 다른 성질을 띄엿던것이다。

영•독•교섭의 강령에 대하여는 영국 외무대신 할리팍스가 대단히 명백하게 표식하엿는바 그는 그의 관리(官吏)들이 모스크바에서 교섭을 계속할때에 히틀러 독일에 확정한 절규로써 문의하엿던것이다。 一九三九년 六월二十九일에 국제외교제국 대학연회(宴會)에서 할리팍스는 「세계를 소동케하는」일체 문제에 관하여 독일과 교섭하기에 준비되엿다고 연설하엿다。 그는 만하기를、

「이러한 새 분위긔속에서 우리는 식민지문제、원료문제、상업장벽문제、「생활상 지역」문제、무긔제한문제 또는 구라파인들에게 관계되는 긔타 일체 문제를 토의할수잇다」(1)고하엿다。

만일 一九三九년도에 벌서 할리팍스와 갓싸운 보수주의적 신문「데일리 메일」은 「생활상 지역」문제를 해설함에 잇서서 쏘련에게서 「생활상 지역」을 빼앗아내야되겟다고 히틀러파들에게 제의한 사실을 회상한다면 할리팍스의 성명서의 진의(眞意)를 조곰도 의심할바가업다。 이는 세계와 세력범위의 분배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히틀러 독일과 문의한

---

(1) 「할리팍스경의 국제정책에 관한 연설」。 오크스풀드、론돈、一九四〇년、二九六페지。

제안이며 쏘련을 참가식히지안코 주로 쏘련을 희생하여 일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안이다。

一九三九년 六월에 벌서 영국대표들은 四개년계획문제를 가지고 론돈에 도착하였다。히틀러의 전권위원 월타트를 경유하여 독일파의 교섭을 극히 비밀리에서 시작한영국 해외상업대신 하드손과 또는 쳄벨렌의 친근한 고문관 호・월손이 월타트와 회담하엿다。이 六월교섭의 내용은 아직 외교비밀문서고에 숨어 잇섯던것이다。그리고 七월에 월타트는 재차 론돈을 력방하고 교섭을 다시 계속하엿다。이 제二차 교섭의 내용은 지금 쏘련정부의 지배하에 잇는 독일 전리품에서 알게되엿으니、이 문건은 속히 발표될것이다。

하드손과 호・월손은 세계적으로 세력범위를 분할할 협약을 포함한 광범한 조약에 대한、「일반 시장들에서 치명적 경쟁」을 철폐할 비밀협약을 시작한것을 월타트에게 또 그 다음에 론돈주재 독일대사 질크센에게 제의하엿다。이에 잇서 동남구라파에서의 우세를 독일에 제공할것을 예정하엿다。질크센은 독일 외무성에 보내는 一九三九년 七월二十二일 발 보고서에는 지적하기를、월타트와 월손간에 토의한 강령은 정치적 군사적 및 경제적 정세를 망라하엿다고하엿다。정치적 론단중에는 불침범조약과 아울러 불간섭조약 특별한 지위를 점유하엿으니 이불간섭조약은 「열강간、특히 영국과 독일간에 생활상 지역을 분계(分界)할것」을 포괄하여야 할것이엿다(1)。

이 二개조약체결과 관련한 제문제를 토의할때에 영국 대표들은 이 조약들에 조인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금방 그가 파란에 제공한 안전보장을 거절하기로 약속하엿다。

단지 그 문제와 파란복도 문제는 영・독・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영국인들은 독일파

(一)영국 주재 독일대사 질크센의 一九三九년 발 보고서、독일외무성 문서고。

파란간에 단독히 해결할 권리를 독일인들에게 주기에 준비되어 영국은 이 문제해결에 간섭치안키로 약속하엿다。

다음으로、이것은 속히 발표될 질크센의 보고서가 문전적으로 역시 확증하는바、윌손은 영국과 독일간에 상술한 조약들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의 안전확보정책은 실제로 파탄될것을 확증하엿다。

질크센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내는 그 보고서에 지적하기를 「그때에 파란은 말하자면 단독한 처지에 잇서서 일대일(一對一)로서 독일과 마주설것이다」라고하엿다。

이 모든것이야말로 영국 지배자들이 파란에 대한 안전보장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서 히틀러에게 파란을 병탐식힘에 준비된것을 의미합이다。

이와함께 영·독·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영국과 불란서가 쏘련과 교섭을 개시하면서 그압헤 내세운 목적을 달성할수잇으며 또는 독일과 쏘련간의 충돌을 쉽게 촉진할수잇섯다。

대종으로 영국과 독일간의 정치적 협약은 경제조약으로 보충될것을 예정한바、그 경제조약에는 식민지문제、원료배정문제、시장분할문제 또는 독일에 줄 영국 대차관문제가 비밀히 협정되엇던것이다。

그런즉 영국 지배자들에게는 독일과 확고히 협약할 유혹적(誘惑的)인 진상이 써돌앗으며 근자에 저들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파란을 대치하여와 쏘련을 대치하여 동방에로 출정할 소위 독일 침략의 「개통로(開通路)」가 확연히 묘사되엿던것이다。

력사 훼방자와 위조자들은 전쟁이 이와가티 불피코 발생할 그 환경을 리해함에 잇서

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 이 사실을 묵파하려고 고심하며 그것을 감추려고 책동하는것은 이상한 일이라할가?

그때에 영국파 불란서는 히틀러 독일로 하여금 전쟁을 조발하지못하도록 그에 저해할 그 어떤 진정한 대책을 취하지아니하엿을뿐만 아니라 도리혀 비밀협정파 밀게방식으로, 히틀러 독일이 쏘련을 침해하도록하는 각종 악선동방식으로 행할 모든 대책을 쓰엇던것은 아모 의심도 할바가 아니다。

어썬 위조자들이던지 력사에서나 인민의 의식에서 이와가튼 결정적 사실을 삭제할수업스니、이 조건하에 잇서서는 쏘련이 선택할것은 이러한것이엇다。즉

혹은 자국을 방위할 목적으로 독일이 제출한 불침범조약체결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여서 쏘련이 일정한 긔간ㅅ지 평화를 보장할수잇게 할것이다。이 긔간에는 쏘련국가가 침략가들에게서부터 잇을수잇는 침공을 배격할 그 력량을 훌륭하게 준비할 목적에 리용할수잇는것이다。

혹은 불침범조약에 대한 독일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서구열강 진영의 전쟁선동자들로 하여금 쏘련에 대하여 극히 불리한 상태에서 또는 쏘련이 전혀 절연된 조건하에서 쏘련을 독일파의 무장적 충돌에 즉시 끄을어 너을수잇는것이다。

이 환경중에서 쏘련정부는 그중 한가지를 채택함으로 독일파의 불침범조약을 불피코 체결하게되엇다。

이 선택은 그때에 조성된 환경에서 쏘련 대외정책의 선견(先見)적이고 영감한 보조이엇다。쏘련정부의 이 보조는 쏘련에 대하여나 또는 일체 자유애호인민에게 대하여 만히 제二차 세계대전의 가장 훌륭한 결말을 예긔하엿던것이다。

히틀러파와의 조약체결이 쏘련 대외정책의 계획안에 가입되엿다고 확증한다면 그는 야비한 훼방일것이다。 그와 반대로 쏘련은 평등원측우에서 협동적안전보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독일파 이태리 침략가들을 대치하여 서구 비침략국가들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장구한 시일을 허비하엿다。 그러나 협약이란 쌍방의 행동이다。 만일 쏘련은 침략파의 투쟁에 대한 협약을 달성하려고하엿다면 영국과 불란서는 쏘련 절연정책、침략가에게 대한 양보정책、동방에로 쏘련을 대치하여 출정할 침략정책을 낫게 녁이여 이 협약을 거절하엿다。 미국은 이런 파멸적 정책을 반대하지아니하엿슬뿐만아니라 도로혀 그것을 백방으로 지지하엿다。 미국 억만거부들을 놋코 말하면 저들은 독일 대공업에 자긔의 자본을 계속투자하엿으며 독일인들에게 군사공업을 전개하도록 방조하엿으며 또 이와가티 독일 침략가들을 무장식히면서「구라파인 신사제씨여、싸홈을 하시오、신(神)의 도음을 바다 제발덕분에 싸홈을 하시오。그리고 겸손한 미국 억만거부 우리는 전쟁에서 수백만 쌀라의 초과리윤을 획득하여 치부하리다」라고 이러케 말하엿던것이다。

쏘련은 구라파의 이러한 정세중에서 불침범조약에 대한 독일인들의 제안을 접수해야할 한가지 출구박게 남지아니한것은 가히 리해할수잇슬것이다。 이는 가능한 일체 출구중에서 극히 낫은 출구이엿다。

一九一八년도에 서구열강이 취한 적대적 정책으로 인하여 쏘련이 독일과 브레스트 평화조약을 불피코 체결함과 마찬가지로 一九三九년도에와서 즉 브레스트 평화이래 二十년후인 지금에 와서도 쏘련은 영국과 불란서의 그 적대적 정책으로말미암아 불피코 독일과 조약을 체결하게되엿던것이다。

쏘련은 하여간 독일인들과 조약을 체결치말어야할것이엇다는 온갓 훼방자들의 말공부는 우습거리에서 더 지나지안는것이다。 영국과 불란서와가튼 동맹국이 잇은 파란은 一九三四년도에 독일인들과 불침범조약을 체결하게되엇는데 그보다 못한 조건에 처한 쏘련은 웨 一九三九년도에 이러한 조약을 체결할수업겟는가? 구라파에서 세력적인 영국과 불란서가 一九三八년도에 독일인들과의 불침범 공동선언서를 발포하엿는데 영국과 불란서의 적대적 정책으로서 인하여 절연된 쏘련은 웨 독일과 계약을 체결할수 업겟는가?

그런데 구라파의 비침략적 대열강중에서 쏘련이 독일과 조약을 래종에 체결한 강국인것은 사실이 아닌가?

물론 력사 위조자들과 기타 반동자들은, 쏘련이 자국의 방위를 공고히할 목적으로 쏘・독・조약을 능숙히 리용하게된것, 쏘련이 그 국경을 멀리 서북에로 드티여 독일군이 거침업시 동부를 침공할 길을 막는것, 히틀러 군대는 동부에로 향한 그 진공을 나르바—민쓰크—세예브의 국경선으로부터 시작한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킬로메터의 서부에로 더 드티여진 국경선으로부터 진공을 시작하게된것, 쏘련은 조국전쟁에서 전패를 당한것이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자로 나서게된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되엇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별서 실패를 당한 정객의 힘업는 악의(惡意)인것이다。

이 신사제씨의 악의적 불만은 쏘련의 정책이 정당한 정책이엇으며 또는 정당한 정책으로 되어잇는 그러한 확실한 사실임을 보일뿐이엇다。

四・

「동부」전선 조직、쏘련을 대치한 독일의 침공、반(反) 히틀러적 련맹 및 동맹국간의 의무문제

쏘련은 一九三九년八월에 쏘・독・불침범조약을 체결하면서 히틀러가 조만간에 쏘련을 침공할것을 일분일초라도 닛지아니하엿다。 쏘련의 이러한 신념은 히틀러적 정치적 및 군사적 긔본립장으로 생기엇다。 이것은 일체 전쟁전 긔간의 히틀러 정부의 실제활동으로 확인되엇다。

그럼으로 쏘련정부의 첫재파업은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한「동부」전선을 조직하여 백로시아 및 우크라이나강토의 서부국경에 공위선을 시설하며 또는 이리합으로써 독일군대가 동방에로 거침업시 전진할것을 대치한 장벽을 건성함에 잇다。 이것을 위하여 一九二〇년에 귀족파란에게 점령된 서부우크라이나와 서부백로시야를 쏘베트백로시아와 쏘베트우크라이나와 도루 련합해야하며 또 이 지방에로 쏘련군대를 출동해야할것이엇다。 이 문제는 연긔할수업섯다。 웨그러냐하면 낫새게 준비된 파란군대는 약하엿으며 파란사령부와 정부는 쌩소니를칠것이오 히틀러 군대는 신중한 저항도업시 쏘련군대가 이 지방에 당도하기전에 백로시아 및 우크라이나 강토를 점령할수잇섯기때문이다。

一九三九년 九월十七일에 쏘련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쏘련군대는 쏘련과 파란의 전쟁전국경을 넘어 서부백로시아와 서부우크라이나를 차지하고 그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및

백로시아 강토의 서부국경선연변에 방위시설을 전개하엿다。이는 력사상에서 소위 「케르손」선(線)이라고 칭하엿는데 이것은 웰사유 동맹국 회의에서 설정한것이엇다。

그후로 수일후에 쏘련정부는 발찌해연안 제국가와의 상호원조조약에 서명하엿는데 그 조약은 에스토니야、라트비야 및 리트바의 지역내에 쏘련군대의 수비대를 배치할것과 쏘련비행장을 시설할것과 해군긔지를 창건할것을 예정하엿다。

이와가티 「동부」전선 긔지가 창건되엇다。

「동부」전선의 조직은 쏘련의 안전보장 조직뿐만 아니라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하여 투쟁하는 평화애호국들의 일반적사업에 신중한 긔증(寄贈)인것을 리해하기 어렵지안타。

그런데 영·불·미·측의 대다수는 쏘련정부의 이 방침에 대하여 악의적 반(反)쏘운동으로 대답하며 이것을 침략으로 취급하엿다。

그러치만 어떤 명찰(明察)한 정객들은 쏘련정책의 의의를 리해하고 「동부」전선을 올케 조직하엿다고 시인하엿다。그들중에는 당시 해군대신 처칠씨가 제一위를 점하엿는데 그는 쏘련을 반대하여 여러번 진술한 불친절한 적대적 연설이후에 一九三九년 十월 一일에 라듸오를 통하여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로시아 군대가 이 국경선에 반듯이 주둔해야할것은 독일위혁을 대치한 로시아 안전보장에 극히 필요하기때문이다。하여튼 진지는 차지하엿으며 또 나치스트적 독일이 감히 침공하지못할 동부전선이 조직되엇다。지난 주일에 폰 리벤뜨로샙씨가 모스크바에로 호출되엇는데 이것은 그로하여금 이 사실을 관찰하고 발찌해연안 제국가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나치스트의 의향은 반듯이 종국되엇다는것을 시인하도록하엿던것이엇다」。

만일에 쏘련 서부국경이 모스크바, 민쓰크 및 세예브에서 멀리 격한것이 쏘련 안전보장 문제에 다소간 만족을 줄수잇섯다면 쏘련 북부국경은 이러한 상태에 잇다고 말할수는 업섯다。 북부국경에서 분난 군대는 레닌그라드로부터 불과 三十二킬로메터의 거리에 잇스며 그 군대의 지휘관의 대다수는 히틀러 독일을 의준하엿다。 쏘련정부는、 히틀러파와 밀접히 관련되엿고 분난군대에 큰 영향을 준 분난지배층의 팟쇼분자들이 레닌그라드를 점령하려고 렵중하는것을 잘 알고잇섯다。 히틀러 군대의 참모부장 할데르는 분난군대의 고급장교들을 교련하기 위하여 一九三九년도 여름에 벌서 분난에 도착한 그 사실은 우연한 사실이라고 인정할수업다。 분난 지배측은 히틀러파와 동맹하엿고 저들은 분난을 쏘련을 침입할 히틀러 독일의 책전장(策戰場)으로 만들려는것에 대하여는 의심하기가 어려웟던것이다。

그럼으로 쏘련이 량국간의 국교개선문제에 잇서 분난 정부와 공통한 의사를 어드려던 일체 시도가 수포에 도라간것은 괴이한것이 아니다。

쏘련안전보장 특히 레닌그라드 안전보장을 목적한 쏘련정부의 일체 우의적 제안을 쏘련이 분난의 당당한 리해관계를 만족식히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련니어 분난정부의 거절을 당하엿던것이다。

쏘련정부는 카렐리야 지협에서 분난국경을 수십 킬로메터싸지 드티게하기 위하여 그 대신에 쏘베트카렐리야의 지대를 二배나 더 만히 양보함에 승락함을 불구하고 분난 정부는 이 쏘련제안을 거절하엿다。

분난정부는 상호원조조약 체결에 대한 쏘련의 제안을 역시 부인하엿음으로 분난측에서의 쏘련 안전보장은 설정되지못한것으로 남어잇섯다。 쏘련파 분난국경에 관한 이러한 태

도와 기타 적대적 행위와 악선동으로서 분난은 쏘련과 전쟁을 일으키엿다。

쏘련과 분난과의 전쟁의 결과는 다 아는바이다。서북에서、특히 레닌그라드 지방에서의 쏘련국경은 드티엿으며 쏘련의 안전보장이 확고하여지엿다。이는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한 쏘련의 방위에서 중대한 역할을 행하엿다。웨그러냐하면 히틀러 독일과 그의 분난 보조자들은 쏘련서북에서、바로 레닌그라드 근방에서 아니라 레닌그라드로부터 근 一百五十킬로메터의 상거되는 서북의 국경선에서 그 진공을 시작하게되엿기때문이다。

쏘련 최고쏘베트 정긔총회에서 一九四〇년 三월二十九일에 브·므·몰로또브는 다음과 가리 연설하엿다。

「…쏘련은 분난군대를 격파하고 전 분난을 점령할수잇섯스나 그러케 처리하지아니하엿스며 또는 기타 열강이 행동하는것처럼 그 군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쎤 배상이던지 요구하지아니하고 최소부분의 요구에 국한하엿다…」

「우리는 평화조약에 레닌그라드、무르만쓰크와 무르만쓰크철도의 안전보장외에는 다른 목적을 내세우지아니하엿다」。

분난 지배층은 쏘련에 관한 일체 그 정책에 잇서서 히틀러 독일에 유익한 행동을 하엿슴에도 불구하고 국제련맹내 영불 주재자들은 단번에 분난정부편에 넘어가 국제련맹을 경유하여 쏘련을 「침략국」으로 선포하엿스며 이리하여 저들은 쏘련을 반대하여 분난 지배자들이 시작한 전쟁을 공개적으로 찬동지지한것을 반듯이 지적해야할것이다。국제련맹은 일본 및 독일—이태리 침략가들을 묵과하고 조장하면서 영불 주재자들의 명령에 의하여 쏘련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순히 채결하고 국제련맹에서 시위적으로 쏘련을 「축출하엿다」。

이뿐만 아니라 분난 반동자들이 쏘련을 대치하여 일으킨 전쟁에서 영국과 불란서는 백방으로 분난 군벌을 원조하엿다。 영불 지배층은 분난정부로하여금 군사동작을 계속하도록 부추기엇다。

영불 지배자들은 분난에 계속적으로 무긔를 공급하엿스며 또 분난에로 十만명으로된 출정군단를 보내려고 렬광적으로 준비하엿다。

하의원에서 一九四〇년 三월十九일에 진술한 쳄벨렌의 성명서에 의하면 전쟁이 시작된후 三개월간에 영국은 분난에 비행긔 一百一대、대포 二百여문、수십만개의 대포철、항공폭탄과 대(對)전차지뢰를 보내엇다。 그와동시에 달라지에도 하의원에서 보도하기를、불란서는 분난에 비행긔 一百七十五대、대포 근 五百여문、五千여병의 긔관총、백만개의 대포철과 폭탄 밋 긔타 각종 무긔를 보내엇다고하엿다。

그 시긔의 영불정부의 계획에 대하여는 영국인들이 一九四〇년 三월二일에 서전인들에게 보낸 비망록(備忘錄)에 의하여 충분히 판단할수잇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갓다。

「여러 동맹국정부는 분난의 전후상황에 대하여 참담한것으로 리해하고잇다。 온갓 가능성을 세밀히 심의한후에 동맹국들은 분난을 실효잇게 원조할 유일한 수단으로 동맹군을 보낼것이니、동맹국들은 분난의 청탁에 대답하여 이러한 군대를 보내기에 준비되엇다」(1)

---

(1)영국 사절단의 一九四〇년 三월二일 발 각서、서전 외무성의 「백서(白書)」、一九四七년 스톡골름、一二〇페지。

영국국회에서 三월十九일에 쳄벨렌이 이에 대하여 말한것과가티 그 당시에,

「출정부대를 보낼준비가 가속도로 수행되엿는데 출정군대는 三월초에…즉 대원수 만네르게임이 작정한 이 군대의 도착긔한보다 더 일즉이 즉 二개월전에 써나기에 준비되엿다」。

쳄벨렌은 이 부대의 인원수가 十만명에 달한다고 말하엿다。

동시에 불란서 정부도 제一착으로 나르위크를 향하여 분난에로 보낼 五만명이 되는 출정군단을 준비하엿다。

영불 지배자들은 히틀러 독일을 대치한 전선에서 영국과 불란서가 아모러한 적극성을 발휘하지아니할때에 즉 전선에서 소위「긔이(奇異)한 전쟁」이 수행될때에 이러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하엿다。

그런데 쏘련을 대치한 분난에 대한 군사원조는 오직 영불 제국주의자들의 극히 광범한 계획중 一부분이엿다。

이상에 임이 지적한 서전 외무성의 「백서」에는 서전 외무대신 훈데르에게 속한문건이 내포되엿다。이 문건에는 쓰기를,

「이 군대성원의 파송은 쏘련을 대치한 일반침공계획에 들어갓스며」 또 이 계획은 「三월十五일부터 시작하여 박수를 대치하여 실시될터이오 또 그전에는 분난걸처 그것이 실시될것이다고하엿다」(一)。

(一)「一九四〇년 三월二일 발 훈데르의 비망록」, 서전 외무성의「백서」 스톡골름, 一九四七년, 一一九페지。

케리립스는 「데골리는 독재관(獨裁官)」이란 책에 이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가티 쓰엿다。

「폴리레이노(1)는 나에게 보낸 서간(그 서간은 나에게 잇슴)에 이 계획의 긔본특징을 서술하엿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낙위를 걸처 분난에 상륙할 긔계화한 출정군단은 무질서한 로시아 도당을 격파할수잇고 레닌그라드에로 출군할수잇다…」(2)

이 계획은 불란서에서 데 골리와 그당시의 씨리야에 주둔한 불란서군대를 지휘한 웨이간 대장이 작성하엿는데 웨이간은 자랑하기를、즉

「약간의 증원대(增援隊)와 비행긔 한 二百대면 깝싸즈를 점령할수잇고 또 「갈로 기름을 버이듯이」할수잇다」고하엿다。

一九四〇년에 불란서 하멜렌 대장이 작성한 쏘련을 대치한 영불 전루계획도 역시 알게되엿는바 그 계획에는 바쑤와 바뚜미를 폭격함에 중점을 두엇다。

영불 통치자들의 쏘련을 대치한 침공준비는 가속도로 진행되엿다。영불 참모본부에서는 이런 침공계획을 열성적으로 강구하엿던것이다。이 신사제씨는 히틀러 독일과 전쟁을 개시할 대신에 쏘련을 대치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엿던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천되지못하엿다。그당시에 분난은 쏘련군대에게 박멸되엇스며 또

---

(1)당시의 불란서정부 각원。

(2)아느리·데·케를리스 저 「데 골리는 독재관」、모느레알 一九四五년、三六三—三六四페지。

는 영국과 불난서가 분란의 항복을 저해하려고 전심전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피코 항복하게되엿다。

一九四〇년 三월十二일에 쏘련—분난 강화조약이 조인되엿다。

이와가티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한 쏘련 방위도 역시 개선되어 북부에서 즉 레닌그라드 구역에서 국경선이 레닌그라드 북부 위보르그까지 一百五十킬로메터나 옴겻다。

그러나 이것은 발띡해로부터 흑해까지의 「동부」전선의 조직을 완수함을 의미함이 아니엿다。발띡해연안 국가와의 조약이 체결되엿스나 이곳에는 방위를 공고히할 쏘련군대가 아직 업섯다。몰다비야와 부꼬위나는 형식적으로 쏘련과 재차 련합되엿스나 이곳에는 방위를 공고히할 쏘련군대가 아직 업섯다。一九四〇년 六월중순에 쏘련군대가 에스토니야、라트비야、리트바에 들어섯다。그해 六월 二十七일에 쏘련군대는 십월혁명후에 쏘련에서 탈취한 부꼬위나와 몰다비야에 들어섯다。

이리하여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한 발띡해로부터 흑해까지의「동부」전선의 조직이 완성되엿다。

「동부」전선을 조직한다하여 쏘련을 침략국이라고 재속욕설하던 영불 지도층은 취측컨대「동부」전선의 산출이 히틀러 폭정을 대치하고 민주주의 승리에 유익하게 전쟁을 발전식히는데 잇서서 근본적 전환을 의미함이라는것을 짐작하지못한 모양이다。

저들은 분난、리트바、라트비야、에스토니야、파란의 민족권을 멸시하거나 멸시치아니함에 대하여 론급한것이 아니라 나치쓰트들을 승리할것을 조직하는 방도로서 이 나라들이 히틀러 독일의 무권리한 식민지로 되지말도록 예방함에 대하여 언급하는것을 리해치못하엿다。

저들은 독일군대가 출동할 가능성이 잇는 전체 구역에서 그 전진을 예방할 장애물을 시설하며 확고한 방위를 조직하며 그다음에 역습(逆襲)에로 넘어가 히틀러 군대를 박멸하며 또 이리하여 이 나라들이 자유롭게 발전할수잇게함에 대하여 언급하고잇슴을 리해하지못하엿다。

저들은 히틀러적 침략을 타승함에는 다른 방도가 더 업는것을 리해하지못하엿다。

애급인들이 항의하엿스며 심지어 애급에서 약간의 분자들이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가 전시에 그 군대를 애급에 주둔한 그 행위를 올타고 말할수잇는가?물론 올타고 말할수잇다!이것은 수에츠운하에로 향한 히틀러적 침략의 길을 막으며 애급을 히틀러의 침해로부터 예방하며 히틀러를 승리할것을 조직하며 또 이리하여 애급을 히틀러적 식민지로 만들지아니할 그러한 중대한 수단이엿다。오직 민주주의원쑤나 정신환자들만이 이 경우에 잇서서 영국정부의 행위를 침략적 행위로 인정할수잇다。

마로코인들이 항의하엿스며 또는 마로코에 세력을 쌔친 불란서 쎄텐정부측에서 군사적 배격이 직접 잇슴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카사블란카에 자긔의 군대를 상륙한 이 행위를 올타고 말할수잇는가?물론 올타고 말할수잇다! 이것은 서부구라파에 직면한 독일침략을 배격할 긔지를 창설하며 히틀러 군대를 타승할것을 획책하며 또 이리하여 불란서를 히틀러적 식민지적 압박에서 해방할 가능이 잇는 신중한 수단이엿다。오직 민주주의원쑤이나 정신환자들만이 이 행위를 미국군대의 침략적 행위로 평가할수잇다。

그런즉 一九四〇년도 여름에 히틀러적 침략을 대치하여 「동부」전선을 조직하엿스며 또는 레닌그라드、모스크바、세예브로부터 서부에로 더 나가 자긔의 군대를 주둔한 쏘련정부의 행

동에 대하여도 역시 그러케 말할수잇다。 이것은 독일 군대가 동방에로 지체업시 전진할 길을 막으며 확고한 방위를 조직하며 그다음에 반공격에로 넘어가 동맹군과함께 히틀러 군대를 박멸하며 또 이리하여 구라파의 평화애호국가들、 그중에는 분난、 에스토니야、 라트비야、 리트바、 파란이 이 히틀러적 식민지가 되지안토록할 그러한 유일한 수단이엿다。 오직 민주주의원쑤들이나 정신환자들만이 쏘련정부의 이 행위를 침략적 행위로 취급할수잇다。

그런데 이로부터 지적해야할것은 쳄벨렌、 달라지예 및 그들의 친우들이 쏘련정부의 이 정책을 침략정책으로 간주하고 쏘련을 국제련맹에서 축출식히엿으니 저들은 민주주의원쑤로나 혹은 정신환자로 행동한것이엿다。

다음으로 이로부터 지적해야할것은 베원 씨와 비도 씨와 서로 합작하야 활약하는 현시 력사 훼방자들과 위조자들은 히틀러를 대치한 「동부」전선의 조직을 침략적 행위로 취급하엿음으로 저들은 민주주의원쑤로나 혹은 정신환자로 행동하엿다。

만일 독일이 침공하기전에 쏘련이 서부에서 이전 국경으로부터 멀리 나가「동부」전선을 조직하지아니하엿다면、 만일에 이 전선이 위보르그—카우나스—벨로스또크—브레스트—리워브의—국경선을 통하지안코 레닌그라드—나르바、 민쓰크—세예브의 이전 국경선을 통하엿다면 어써케 되엿슬가?

이것은 히틀러 군대에 수백킬로메터의 지대를 공으로 어들 가능을 줌으로써 독일 전선이 레닌그라드—모스크바—민쓰크—세예브에로 二百 내지 三百킬로메터이나 더 깟가히 옴겨와서 독일인들로하여금 쏘련에로 기피 전진하는것을 축진할수잇엇스며 세예브와 우크라이나의 합락을 축진할수잇엇스며 독일인들이 모스크바를 점령케 할수잇엇스며 독일인들과 분난

인들의 련합군이 레닌그라드를 점령케 할수잇섯스며 또는 쏘련으로하여금 장구한 방위에로 넘어가게할수잇엇다。 이것은 독일인들이 영국군도에 상륙하기 위하여 또는 애급지대에 독일—이태리 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五十개의 사단을 동방에서 그지방에로 가지어갈 가능을 그들에게 줄수잇섯슬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필시 영국정부는 카나다에로 이전하엿을것이며 또 애급과 수에츠운하가 히틀러의 주권하에 들어갓슬것이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쏘련은 방위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만주국경으로부터 「동부」에로 불피코 자긔군대를 적지안케 가지어갈수잇다。 이것은 만주에서 일본인들이 三十개의 사단을 철환하여 중국을 대치하여、 비율빈을 대치하여 대체로 동남아세아 즉 결국 극동의 미국군력을 대치하여 보낼 가능을 일본인들에게 줄수잇섯슬것이다。

이모든것은 필시 전쟁을 적어도 두해나 더 ᄭᅳ을게할수 잇서서 제二차 세계대전은 一九四五년도에 아니라 一九四七년도에나 혹은 그후에 완필되엿을것이다。

「동부」전선에 대한 문제는 이러케되엿섯다。

그런데 서부에는 사변이 제멋대로 진행되엿다。 독일인들은 一九四○년 四월에 정말과 낙위를 점령하엿다。 五월 중순에 독일군대는 화란、 백이의、 룩셈부르그에 들어섯다。 五월二十一일에 독일인들은 라만스에로 나아가 플란드리에서 동맹군을 휩싸다。 五월말에 영국군대는 쭌케르에서 철퇴하엿고 불란서에서 써나 영국에로 갓다。 六월중순에 파리가 함락되엿다。 六월二十二일에 불란서는 독일에게 항복하엿다。

이와가티 히틀러는 불란서와 영국과 체결한 각종의 불침범선언서를 줏밟아버렷다。

이것은 조정정책(調停政策)、협동적 안전보장부인정책、쏘련절연정책이 전혀 파탄된것이엇다。

불란서와 영국은 쏘련을 절연식히고서 자유애호국의 통일전선을 격파하엿고 그리하여 자국을 약하게하엿스며 또 절연식혓다。

독일인들은 一九四一년 三월에 볼가리야를 점령하엿다。

쏘련은 四월五일에 유고슬라비야와의 불침범조약에 조인하엿다。

그해 六월二十二일에 독일은 쏘련을 침공하엿다。

이태리、루마니야、흉아리、분난은 독일편에 서서 쏘련을 대치한 전쟁에 들어섯다。

쏘련은 히틀러 독일을 대치한 해방전에 들어섯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각 사회층은 이 사변에 대하여 여러가지 태도를 가지엇다。

히틀러에게 정복된 인민들은 한숨을 가비엽게 쉬면서 二개의 전선 즉 서부전선—「동부」전선에서 히틀러가 목덜미를 불찔을것이다라고 말하엿다。

불란서의 지배층은 매우 쩔은긔간에「로시아가 박멸될것은」의심할수업다고 고소(苦笑)하엿다。

미국 상의원의 유명한 의원이며(현재에는 미국대통령인) 트루맨은 독일이 쏘련을 침공한후 二일을 지나서 다음과가티 성명하엿다。

「우리는 만일에 독일이 승리하는것을 보면 로시아에 방조를 줄것이고 만일 로시아가 승리할것가트면 독일을 방조할터이다。이리하여야 저들이 호상간에 더욱더 만히 살해하도록할것이다」(1)。

(1)「뉴욕 타임스」、一九四一년 六월二十四일。

이와상사한 성명은 一九四一년도에 영국 항공대신 무르 브·라바손이 진술하엿는데、이것은 영국에 관계되기때문에 동부전선에서의 훌륭한 전투결말은 독일과 쏘련의 상호간 쇠약이니 이로말미암아 영국은 지배적 지위에 처할수잇다고 하엿다。이 출연은 영미국 반동측의 립장을 표시함은 의심업다。

그런데 영미국 인민의 절대다수는 쏘련을 찬동하면서 히틀러 독일을 대치한 투쟁을 성파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쏘련과 제휴할것을 요구하엿다。

영국 총리대신 처칠은 이 긔분을 一九四一년 六월二十二일에 진술한 성명서에 다음과 가티 반응하엿다。

「로시아에 대한 위협은 우리의 위협이며 미국의 위협이며 또는 자긔의 강토와 주택을 위하여 투쟁하는 각개 로시아인의 사업은 지구상 임이의 부분에 거주하는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로운 인민의 사업인것이다」。

쏘련에 대한 이러한 립장은 미국 루스웰트정부가 취하엿든것이다。

이것이 히틀러 독일을 대치한 영쏘미련맹의 시초이엇다。

반(反)히틀러적 련맹은 히틀러통치를 타도하고 히틀러 독일에게 정복된 인민들을 해방식힐 목적을 내세웟다。일부 동맹국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체계에 차이점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영쏘미련맹은 히틀러주의를 대치한 해방투쟁에 그 력량을 단결한 인민들의 유력한 련맹이엇다。

물론 그때에 즉 전쟁당시에 어떤 문제에 잇서서 동맹국간에 의견상위가 잇섯다。례하면 제二전선개시에 대한 문제、동맹국의 의무에 대한、동맹국간의 도덕상 의리에 대한 문제와 가튼 이러한 중대문제에잇서서 의견상위가 어떤 의의를 가진것은 주지하는바이다。

력사 위조자들과 각종 훼방자들은 이 의견상위를 들어잡고서 현실을 반대하여 쏘련은 히틀러적 침략파의 투쟁에서 정직하고 진정한 동맹국이 못되엿스며 또 못될것이라고 「증명하기에」 고심하고잇다。 그러나 히틀러 독일을 대치한 공동투쟁과 또는 이 투쟁에서 취한 쏘련의 태도는 이러한 비난(非難)에 유의할 어떤 재료도 주지안키때문에 저들은 一九四〇년도에 백림에서 히틀러와의 「협의할」때에 쏘련대표들은 배신적으로 동맹국답지안케 행동하엿다고 증명하면서 과거시긔 즉 전쟁전시긔에로 돌아가고잇다。

저들은 역설하기를 백림 「교섭」당시에 「구라파분할에」 배신적 「계획」、「쏘련의 남으로부터 인도양의 방향에」잇는 지대에 대한 쏘련의 지역상 요구、토이기、이란、볼가리야에 대한 「계획」 및 긔타 「제문제」를 토의하고 채택하엿다고한다。 훼방자들은 이 목적에 독일대사와 긔타 히틀러 관료배의 보고서、각종 비망록 및 어떤「의정서」와 긔타 상사한 「제문건」의 독일제안을 리용하고잇다。

실제로 독일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되엿던가? 소위 一九四〇년도 『백림교섭』이란 실제로 리벤뜨르쁘가 모스크바를 두번 방문한 그에 대한 브·므·몰로또브의 대답밖게는 더 안된다고 말해야할것이다。 그때에 진행된 담화는 주로 쏘독관계에 대한 담화이엿다。 히틀러는 그 교섭을 쏘독양국간의 광범한 협약까지로 만들려고 고심하엿다。 쏘련측은 그와반대로 독일과 어떤 협약을 체결할 아모 취지도 업시 독일측의 립장을 속셈이하고 수탐(手探)함에 리용하엿다。 이 회담시에 히틀러는 쏘련은 서부이란과 이란에 잇는 영국인들의 원유산업을 점령하고 파사만에로 나갈 출구를 장악해야된다고 인정하엿다。 다음으로 그는 말하기를、독일은 토이기에 대한 쏘련의 그요구를 조정함에잇서서 해협에대한 몬테르조약을 개정함에 쏘련에 방조를 줄수잇다고하

엿다。 그런데 이점에 잇서서 히틀러는 이란의 리해를 전연히 무시하며 토이기의 리해를 극히 옹호하면서 확실히 토이기를 현시동맹국으로나 혹은 지어 미구의 동맹국으로 간주하엿다。 발칸국가들과 토이기에 관하여는 히틀러는 이 나라들을 독일과 이태리의 세력범위로 간주하엿다。

이 담화에 의하여 쏘련정부는 다음과가튼 결론을 지엇다。 독일은 이란과의 관계를 중하게 녁이지안으며 독일은 영국과 련락을 취하지아니하엿스며 또 취하려는 생각조차업는것이다。 그런즉 영국은 히틀러 독일을 대치한 쏘련의 미듬잇는 동맹국이 될수잇다는것이다。 발칸제국가는 이미 매수되엇거나 혹은 독일의 례속국(볼가리야、루마니야、흉아리)으로 되엇거나 혹은 체호슬로바씨야처럼 정복되엇거나 희랍처럼 정복되는 도정에 잇섯다。 발칸국가들중에서 유고슬라비야만이 장차 반(反)히틀러적 진영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될수잇다。 토이기는 히틀러 독일에 벌서 긴밀히 얽매웟거나 혹은 그와 련결하려는 취지가 그에 잇섯다。

이 유의한 결론을 지고서 쏘련정부는 리벤뜨로쁘가 이 문제를 루차 회상식힘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문제에관하여 어썬 담화던지 다시 계속하지아니하엿다。

보는바와가티 이것은 쏘련정부측에서 히틀러 정부의 립장을 알아내고 수탐하는것이니、그는 어썬 협약을 달성하지못하엿으며 또 달성할수도업슬것이엇다。

평화애호국들측에서 적국(敵國)의 립장을 이러케 속샘이할수잇는가?물론 속샘이할수잇다。그샌만아니라 이러한 속샘이는 어썬때에는 직접 정치덕 필요가 되는것이다。 속샘이는 반드시 제동맹국이 알게 또 동의에 의하여 하며 또 그 결과는 제동맹국에 보도해야할것

이다。 그때에 쏘련에는 동맹국이 업섯고 그는 고립되엇으니사 유감스럽게도 속샘이의 결파를 제동맹국과 토의할수업섯던것이다。

지적해야할것은 영미국 대표들은 바루 전쟁당시에、 반(反)히틀러적 영쏘미련맹이 결성된후에 이와 상사하나마 그러나 추악한 냄새나는 속샘이、 히틀러 독일의 립장에 대한 속샘이를 하엿다는것이엇다。 이것은 독일에서 쏘련군대가 빼앗은 제문건에서 나타낫다。

이 문건에 의하면 一九四一년도 가을에 또는 一九四二년도와 一九四三년도에 리싸본파 서서에서 쏘련을 돌려내노코 영국과 독일대표들간에 또 그다음에는 미국과 독일 대표들간에 독일파의 평화조약 체결문제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된것을 알게되엇다。

그 문건중 독일 외무대신차관 웨이츠 세케르의 보고서 부록에는 一九四一년 九월에 리싸본에서 진행된 교섭행정이 서술되엇다。 이 문건에 의하면 九월十三일에 영국군대의 장교이며 추후에 영국국회 의원인 영국대표 비워르브루크 경의 아들 에이트켄은 독일 외무성의 위임을 바다 활동하는 흉아리인 후스싸브 폰 케웨르와의 면회가 잇섯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제네바 주재 독일 총령사 크라우엘리가 웨이츠세케르에게 보낸 서간이 판단할수잇는것이다。

이 교섭에서 에이트켄은 직접 다음과가티 질문하엿다。「도라오는 겨울과 봄을 연막(煙幕)뒤에서 평화의 가능을 토의함에 리용할수잇겟는가?」、

다른 문건은 一九四三년도 二월에 서서에서 독미정부의 대표들간에 잇슨 교섭을 말하여준다。 이 교섭은 미국측으로부터「백아궁」의 위임과 전권을 직접 바다「발」이란 익명(匿名)으로 활동한 미국정부의 특별전권위원 알렌 달레스(존・포쓰테르・달레스의 동생)가 진

행하엿던것이다• 독일측으로의 대화자（對話者）는 히틀러 독일의 지배층에 갓삽고 「싸울류스」란 익명으로써 독일대표로 참가한 공작 므•호겐로에이엇다。 이 협의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은 히틀러 특무국（SD）에속하엿다。

이 문건에 의하면 담화는 오태리、체호슬로바키야、파란、루마니야、흉아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특히 독일파의 평화조약체결 문제를 취급하엿던것이다。

아•달레스（발）는 이 담화에 성명하기를、

「언제던지 독일인파가튼 인민은 불공정과 곤난때문에 절망석 실험이나 사긔（士氣）를 압흐로 발휘하지말도록 할것이다。 독일국가는 질서와 복구의 동인（動因）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할것이다。 독일국가의 분할이나 혹은 오태리의 할리에 대하여 언급할수 업다」고 하엿다。 파란에 관하여는 달레스（발）가 성명하기를—

「…파란을 동방쪽으로 확장하고 루마니야와 력강한 흉아리를 보존하는 방도로써 볼세위즘파 범（汎）슬라브주의에 대치하여 방역선（防疫線）의 건설을 지지해야된다」고하엿다（１）。

다음으로 담화에는 쓰기를、

「발 씨는 구라파의 국가긔구와 산업긔구를 다소간 숭락하면서 거대한 지역에 긔초된 대독일련방（미국과 상사한）이 싸위련방을 련합하여가지고 중부구라파와 동부구

（１）독일 문서고에 잇는 「싸울류스와 발 씨의 담화」。

라파의 복구와 질서에 대한 훌륭한 안전보장을 실시할것을 예상한다」고 하엿다(1)。 달레스(발)는 또한 성명하기를 그는 구라파에서 독일산업이 령도적 역할을 참망(僭望)함을 시인한다고 하엿다。

이 속샘이는 영국인과 미국인들의 동맹국인 쏘련이 모르게 또 동의업시 실시되엿는데 저들은 쏘련정부에 이 속샘이의 결과에 대하여 심지어 추후 통신차로도 아모것도 보도하지아니한것을 지적하지아닐수업다。

이것은 영미량정부가 이 경우에 잇서서 히틀러와 단독강화에 대한 교섭의 길에 들어서려고 책동하는것을 의미할수잇다。

영미량정부의 이런 행위는 동맹국 의리와 동맹국 의무에 대한 초보적 요구를 위반한것으로 간주하지아닐수 업는것은 명백하다。

력사 위조자들은 쏘련을「불성실(不誠實)」하다고 론죄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남에게 넘겨씨우려고하는셈이다。

력사 위조자들과 기타 훼방자들은 이 문건을 안것은 의심할수업는바이다。만일에 저들이 반(反)쏘 훼방운동에서 이 문건을 감추며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이것을 은폐한다면 이것은 저들이 력사적 진리를 호렬병파가티 겁내기때문이다。

제二전선 개시문제에 대한 의견상위에 관하여 말하면 이점에잇서서 동맹국들은 저들의 상호간 관계에 대한 그 의무를 여러가지로 리해하엿다。쏘련사람들은 인정하기를, 만

(1)상술한 문건을 참고 하라。

일 동맹국이 불행에 처하엿다면 가능한 일체 수단으로 반드시 구원해야하되 그 동맹국에 대하여 림시 동반자(同伴者)로가 아니라 벗으로 보아 그의 성과、그의 강화를 즐거워해야할것이라고 한다。영국인과 미국인 대표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이런 도덕은 소박한짓이라고 인정한다。저들은 력강한 동맹국은 위험함으로 동맹국의 강화에 취미를 두지안으며 력강한 동맹국보다 쇠약한 동맹국을 가지는것이 낫다고하면서 만일 동맹국이 강화하여진다면 그를 쇠약케할 방침을 취해야된다는데서 출발한다。

주지하는바 一九四二년 六월 쏘미콤뮤니케에서와가티 영쏘콤뮤니케에서는 영국과 미국인들은 구라파에서 一九四一년도에 제二전선을 개시하겟다는데 대한 의무를 부담하엿던것이다。이는 개선식적 약속이니 말하자면 저들은 전쟁의 제一긔에 독일 파시즘을 배격하는 쏘련군대가 걸머진 일체 중하를 덜기 위하여 제긔한에 반듯이 실행해야할 맹서이엇다。그러나 쏘련은 제二전선의 연긔를 용인할수업다고 쏘련정부가 루차 성명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一九四二년도에도 실행하지안헛고 一九四三년도에도 그것을 실행하지 안은것은 다아는바이다。

제二전선 연긔정책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엇다。이 정책은 영미반동측의 욕망을 내포한것이니、저들은 독일 파시즘을 대치한 해방투쟁과업과 공동성이 업는 그 목적을 독일과의 전쟁에서 추구하엿던것이엇다。저들의 계획에는 독일 파시즘을 전멸할 과업이 들지아니하엿다。저들은 협소한 리긔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독일의 세력을 파괴함에 주로 세계시장에서 독일을 위험한 경쟁자로 보아 그를 제외함에 리해관계를 가지엇던것이다。그러나 저들의 목적에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파시즘의 보유자(保維者)인 반동적 세력으로부터 독

일파 긔타 여러 나라를 해방식힐 파업이 결코 들어가지안헛스며 긔본민주개혁을 실천할 파업도 들어가지아니하엿던것이다。 이와함깨 저들은 쏘련이 쇠약할것과 그가 긔진맥진할것과 또는 전쟁에서 피페한 쏘련이 위대한 력강한 나라의 의의를 오래동안 상실할것과 또 전쟁후에 영미국에 례속될것을 예긔하엿던것이다。

쏘련은 동맹국에 대한 이러한 관게를 정상적 관게라고 인정할수업는것은 리해하는바이다。

동맹국간의 관게에 잇서 쏘련이 수행하는 정책은 이러한 정책에 정반대되는것이다。 이 정책은 자담한 의무를 비(非)리긔주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정직하게 실행하며 그 동맹국에 우의적방조를 항상 줌에 준비되엿다는것이다。 쏘련은 지나간 전쟁에서 일반적 원쑤와의 투쟁에서 전투적 동지인 긔타 여러나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러한 동맹국답은 모범을 보이엿다。

이러한 사실중에서 한가지만 들어보자。

아는바와가티 一九四四년도 十二월말에 히틀러 군대는 서부전선의 아르덴구역에서 진공을 개시하여 전선을 돌파하고 영미국군대로하여금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잇게하엿다。 동맹국들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독일인들은 리예스를 공격하면서 미국 제一군을 격파하고 안트워르펜에로 진출하여 미국 제九군、영국 제二군파 카나다 제一군을 분리한후에 전쟁에서 영국을 제외하기 위하여 동맹군에 대하여 제二쥰케르크를 만들려고하엿던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一九四五년도 一월六일에 우·처칠은 이·브·쓰딸린에게 다음의 내용을 가진 서간을 보내엿다。

「서부에서 아주 어려운 전투가 진행되어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로부터 큰 결의가 요구될수잇습니다。당신이 몸소 자긔경험에 의하여 아는바와가티 림시로 창발력을 일은후에 매우 광대한 전선을 통하여 방위하게된 그 정황은 비상히 어려운것입니다。에이센하우에르 대장은 당신이 수행하려고 예정한바를 원컨대 대강이라도 반드시 알아야할것입니다。이는 그의 결의에나 우리의 결의에 반영되기때문입니다。바든 통지에 의하면 우리 밀사(密使)테데르 항공대원수는 어제 저녁에 일긔로 인하여 카이르에 체류하엿습니다。그의 출장은 당신의 잘못으로 오래 지체된것이 아닙니다。만일 그가 당신에게로 도착하지아니하엿다면、만일 一월간에 위슬라의 전선에서나 혹은 다른 지방의 전선에서 로서아인들의 대진공이나 또는 당신이 알리어 줄수잇는 긔타 임이의 모멘트를 우리가 예산할수잇슴을 당신이 나에게 보도하신다면 나는 감사를 들이겟습니다。나는 이 중대한 비밀보도를 부르크 원수와 에이센하우에르 대장에게만 알리어주고 다른사람들에게는 알리어주지안코 이 보도의 비밀을 엄정히 직힐것입니다。나는 이 문제가 긴급한 문제이라고 인정합니다」。

一九四五년 一월七일에 이·브·쓰딸린은 우·처칠에게 다음과 가튼 답서를 보내엿다。

「一九四五년 一월六일에 보낸 당신의 서간을 一월七일 저녁에 밧엇습니다。유감스러우나마 항공대원수테데르씨는 모스크바에 아직 도착하지아니하엿습니다。

우리는 독일인들을 대치하여 포병대와 항공대의 탁월을 리용하는것이 극히 중대합니다。이 종류에 잇서서 비행긔는 청명한 일긔를 요구하며 또 포병대는 직사격에 장애를 주는 낫게낀 안개가 업서야됩니다。우리는 진공을 준비하나 지금 일긔는 우리

진공에 석당치못합니다。 그런데 서부전선에서의 우리동맹국의 정황을 타산하여 최고총사령부는 일긔에 불관하고 가속도로 준비사업을 완필하고 一월 후반삭전으로 일체 중부전선을 통하여 독일인들을 대치한 광범한 진공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엿습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우리 동맹군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할수잇는데까지 전력할터이니 당신은 걱정마십시오」。

우・처칠은 이・브・쓰딸린에게 보낸 一월九일 서간에 다음과가티 쓰엇다。

「나는 당신의 감동적인 서간을 밧고 당신에게 큰 감사를 들입니다。 나는 이 서간을 에이센하우에르 대장에게 그가 혼자만 보라고 전하엿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계획에 완전한 성공이 병행될것을 복축할것이다!」。

서부의 동맹군에게 긴급히 방조할것을 원하면서 쏘련군대의 최고총사령부는 쏘・독・전선에서 독일을 대치한 진공긔한을 一월二十일로부터 一월十二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엿다。 一월十二일에 발찍해로부터 카르파트싸지의 광범한 전선에서 쏘련군대의 대진공이 시작되엿다。 대포와 비행긔를 다량으로 가진 쏘련사단 一百五十개를 출동하엿는데 이 사단들은 독일전선을 돌파하고 독일군대를 수백킬로메터에로 내쪼찻다。

一월十二일에 서부전선에서 독일군대(그중에는 새 공격을 목적한 제五전차군과 제六전차군도 잇슴)는 공격을 정지하고 또 五、六일간에 이 군대를 서부전선으로부터 동부에로 쏘련군대의 진공을 대치하여 파견하엿던것이다。 이리하여 서부에서의 독일군대의 진격이 파탄되엿다。

一九四五년 一월十七일에 우・처칠은 이・브・쓰딸린에게 다음과가티 쓰엇다。

「나는 당신이 보낸 서간을 밧고 감사를 들이며 또 나는 테데르 항공원수가 당신에게 깃친 그 훌륭한 인상에 대하여 매우 깃비합니다。

제국정부의 명의로 나는 당신이 동부전선에서 시작한 그 굉대한 진공에 대하여 나의 감사와 축하를 충심으로 당신에게 들입니다。

당신에게 지금에는 에이센하우에르 대장의 계획이 확실히 알릴것이며 또는 이 계획실천이 어떤 정도로서 룬드스테드의 착란식히는 진공에 의하여 지체된것을 알것입니다。 나는 일체 우리전선에서 전투가 불단적으로 진행될것을 밋습니다。 영국 제二十一부대는 몬트고메리 륙군원수 지휘하에서 로예르몬드의 남부지방에서 오늘 진공을 시작하엿습니다」。

一九四五년 二월에 쓰련군대에 보내는 이·브·쓰딸린의 명령서에는 쓰련군대의 이 진공에 대하여 다음과가티 쓰엿다。

「금년一월에 붉은군대는 발찌해로부터 카르파트싸지의 전체 전선을 통하여 파천황(破天荒)의 힘으로 적을 박멸하엿다。 붉은군대는 여러해동안 건축한 一千二百킬로메터에 달하는 독일의 철옹성을 파피하엿다。 붉은군대는 진격하는 행정에서 민첩하고 숙달한 행동으로 적을 서쪽으로 멀리 배격하엿다。

우리의 동긔진격의 성과는 위선 백이의와 엘자쓰를 점령하려고 적들의 목적한 동긔간 서부진격을 파멸시기엿스며 우리동맹국 군대로하여금 적을 대치하여 진격전으로 넘어가며 그들의 서부진격이 붉은 군대의 동부진격과 배합되게할 가능을 주엇다」。

이·브·쓰딸린은 이러케 활동하엿다。

일반석 투쟁에서 참된 동맹국들은 반듯이 이러케 활동하는것이다。

* * *

모든 사실은 이러하다。

물론 력사 위조자들과 훼방자들이란 그들은 사실을 존경시하지아니하기때문에 위조자들과 훼방자들이라고 칭하는것이다。 저들은 협담파 훼방을 일삼으려고한것이다。 그러나 이 신사제씨의 협담과 훼방은 업서질것이고 사실은 그대로 남아잇스리라는 일반이 다아는 한가지 진리를 결국 시인하게될것은 의심할바가 업는것이다。

쏘련정보국